

Annual Report
2025
KBS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25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25
4. 상담내용 분석	33
5. 정보공개 안내	86
※ 시청자 권익 보호란?	94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97
7. 시청자 청원	99
8. 부록 (관련근거)	101
- KBS 방송강령	101
- KBS 민원처리규정	106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01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14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기준	119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일(1일, 15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16명이 주간 2교대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전일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여 KBS 방송제작 및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인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하는가?

2

2025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25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196,169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중 방송관련 의견(151,900건, 77.4%)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륜
2025년	196,169	▼ 44,602	-18.52%
2024년	240,771	▲ 3,212	1.35%
2023년	237,559	▼ 25,841	-9.81%
2022년	263,400	▼ 23,216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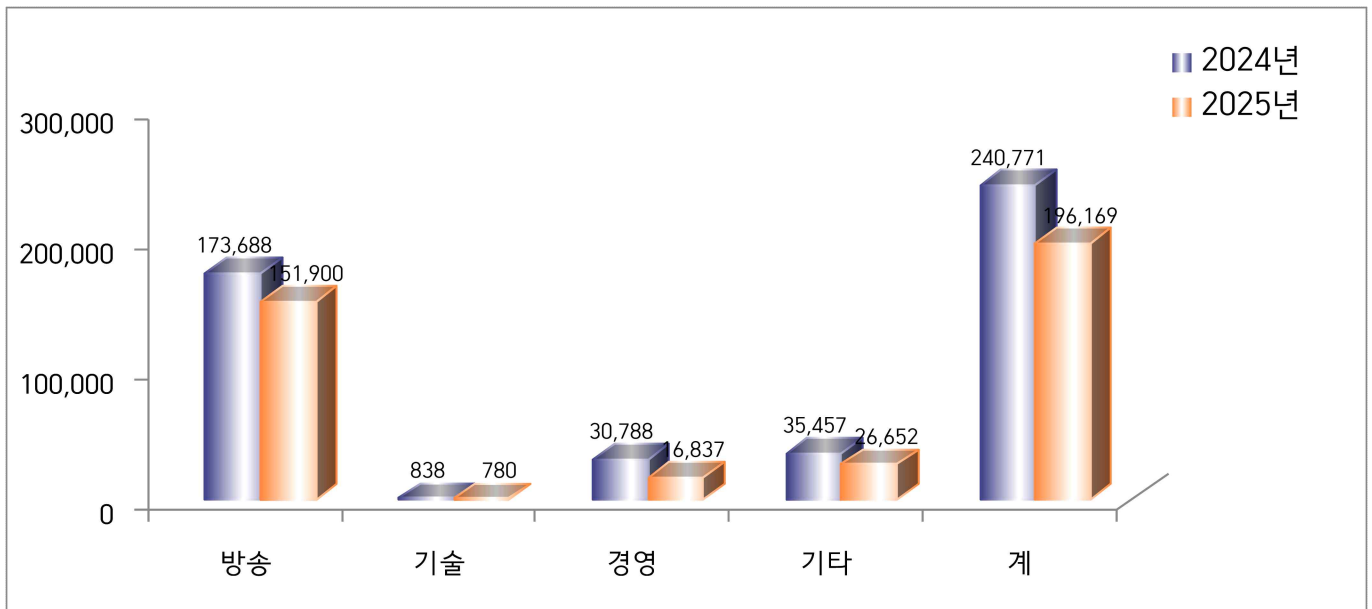


2 시청자의견 집계

■ 2025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콜백	계	
1	14,172	60	1,833	2,477	18,542	
2	14,014	96	2,009	2,225	18,344	
3	13,621	56	1,775	2,445	17,897	
4	11,729	58	1,396	2,221	15,404	
5	12,221	65	1,158	2,210	15,654	
6	11,460	74	1,129	2,201	14,864	
7	12,880	96	1,648	2,650	17,274	
8	12,744	59	1,350	2,674	16,827	
9	13,243	64	1,416	2,242	16,965	
10	11,506	54	1,091	1,676	14,327	
11	11,462	50	823	1,607	13,942	
12	12,848	48	1,209	2,024	16,129	
계	건	151,900	780	16,837	26,652	196,169
	비율	77.4%	0.4%	8.6%	1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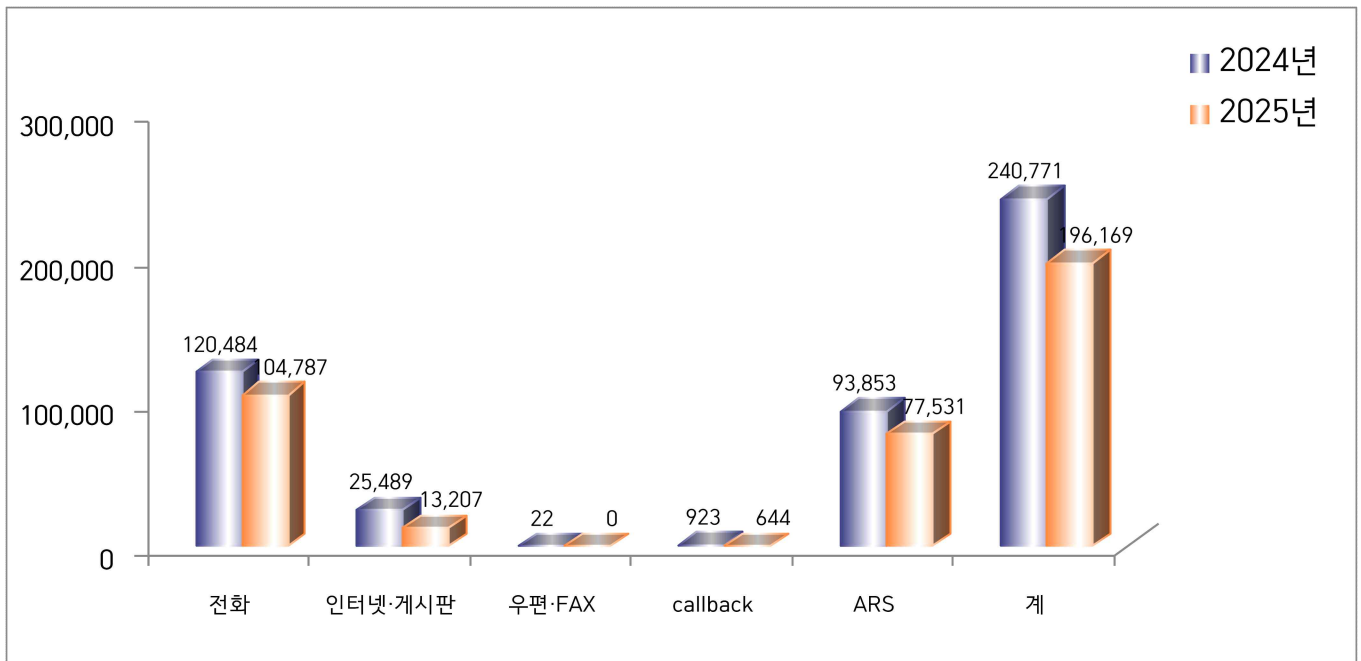
[2024년, 2025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 2025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콜백	ARS	계	
1	9,712	1,529	-	69	7,232	18,542	
2	9,123	1,558	-	60	7,602	18,344	
3	9,644	1,181	-	70	7,002	17,897	
4	8,588	933	-	49	5,834	15,404	
5	8,637	971	-	59	5,987	15,654	
6	7,983	1,211	-	52	5,618	14,864	
7	9,220	1,300	-	41	6,713	17,274	
8	9,233	1,209	-	41	6,344	16,827	
9	9,094	760	-	39	7,072	16,965	
10	8,251	601	-	42	5,433	14,327	
11	7,048	609	-	86	6,199	13,942	
12	8,253	1,345	-	36	6,495	16,129	
계	건	104,787	13,207	-	644	77,531	196,169
	비율	53.4%	6.7%	0.0%	0.3%	3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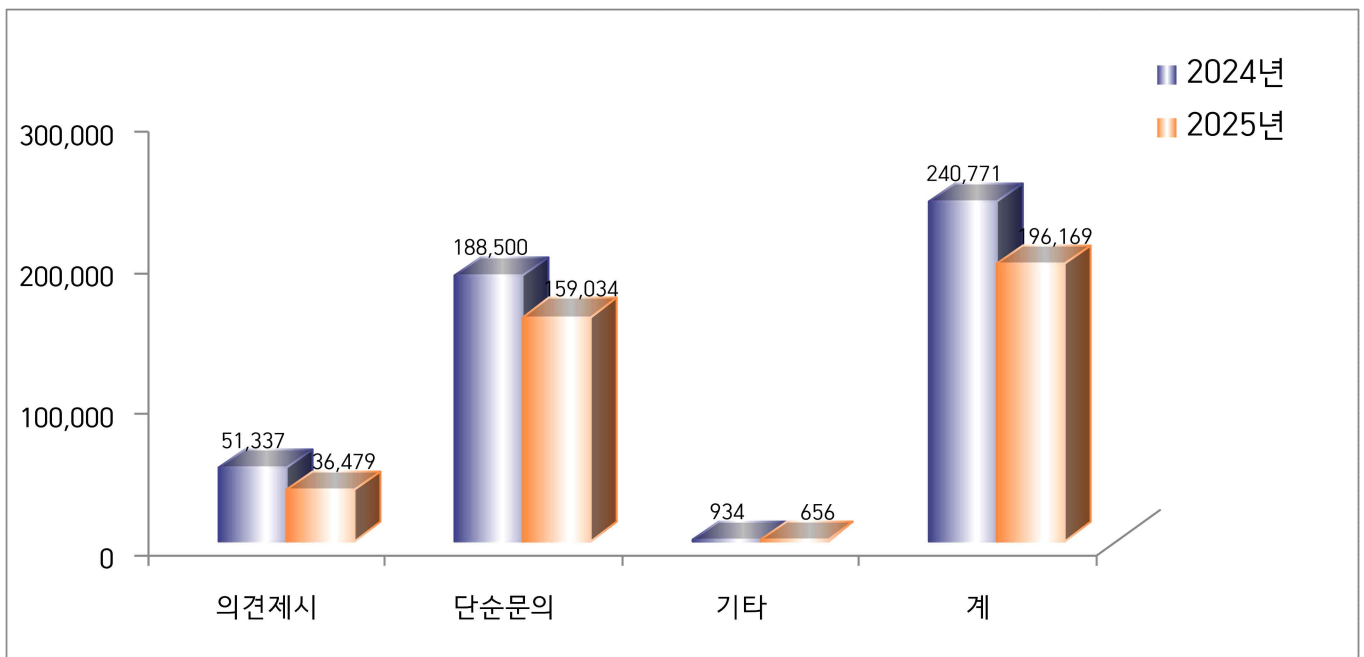
[2024년, 2025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 2025년 시청자의견 건수

월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	4,202	14,270	70	18,542	
2	3,577	14,705	62	18,344	
3	3,389	14,434	74	17,897	
4	2,970	12,384	50	15,404	
5	3,065	12,530	59	15,654	
6	2,848	11,964	52	14,864	
7	2,732	14,501	41	17,274	
8	2,795	13,991	41	16,827	
9	2,766	14,158	41	16,965	
10	2,562	11,723	42	14,327	
11	2,275	11,580	87	13,942	
12	3,298	12,794	37	16,129	
계	건	36,479	159,034	656	196,169
	비율	18.6%	81.1%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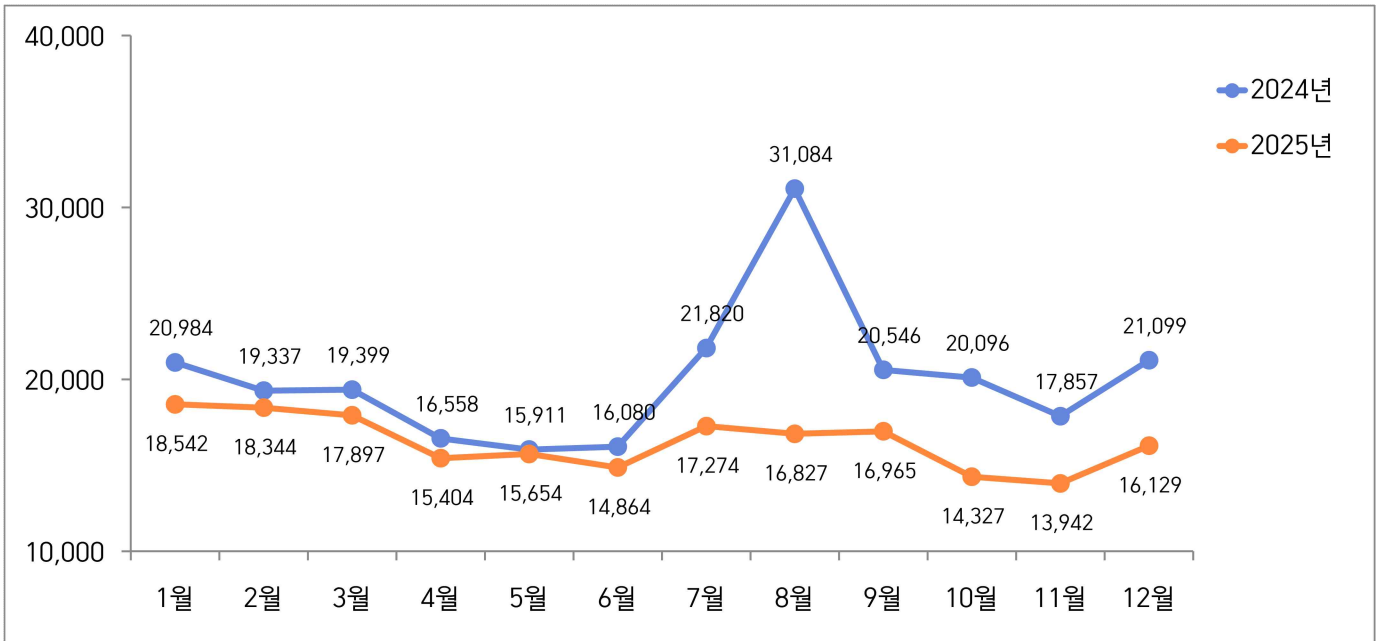
[2024년, 2025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 2025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542	18,344	17,897	15,404	15,654	14,864	17,274	16,827	16,965	14,327	13,942	16,129

[2024년, 2025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25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241	65	-	75	51	43	30	-	1	506	
2	62	22	2	101	35	13	32	-	12	279	
3	433	18	16	120	31	10	26	-	10	664	
4	118	91	21	66	49	53	29	-	1	428	
5	77	18	-	79	62	28	25	-	6	295	
6	84	24	-	71	61	17	28	-	6	291	
7	179	9	4	69	501	28	34	-	-	824	
8	275	20	7	73	36	27	29	-	-	467	
9	44	15	-	80	63	33	35	-	1	271	
10	141	12	4	86	33	20	26	-	-	322	
11	65	14	1	79	37	13	34	-	1	244	
12	180	10	-	66	110	20	30	-	98	514	
계	건수	1,899	318	55	965	1,069	305	358	-	136	5,105
	비율	37.2%	6.2%	1.1%	18.9%	20.9%	6.0%	7.0%	0.0%	2.7%	10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전국노래자랑	어제까지가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었는데, 이날도 결방이 됐다. 타사는 예능 프로그램을 다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정상 편성되길 바란다.	63
2월	추적 60분	부정선거를 다룬 이날 방송을 시청했고, 실망했다. 공영 방송은 공정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 입장만 다뤘다.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뤄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이었다.	35
3월	전국노래자랑	교회 다녀와서 노인들이 다 같이 본인의 집에 모여 해당 방송을 시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방송이 시작되지 않아 의아했다. 노인들은 편성 변경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일요일이면 무조건 모여서 시청할 생각만 한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02
4월	유튜브 뉴스 불만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들 간 균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KBS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들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추측성 내용을 보도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78
5월	개그 콘서트	어린이날 특집 방송에 자녀 두 명과 함께 다녀왔다.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내년에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왁자지껄 아이들의 환호성을 들으니,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하다.	30
6월	개그 콘서트	이날 방송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오랜만에 박나래 씨와 장도연 씨가 출연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웃었고, 감회가 새로웠다. 방송 시간대도 시청하기에 적절하고 좋다.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 전한다.	16
7월	KBS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조용필 콘서트 티켓팅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다. 아직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데, 언제쯤부터 티켓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빠른 공지 바란다.	243
8월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요즘 불만한 프로그램들이 다 결방해서 속상하다. 앞으로는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25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아침마당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들 이날 방송을 시청하다가 채널을 돌렸다고 한다. 출연자들이 꼭 품격있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은 지나치게 요란했다.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서 시청하기 힘들었다.	10
10월	아침마당	이날 '도전 꿈의 무대' 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TV를 틀어 놓고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걱정이 됐다. 앞으로는 결방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다음 주 '도전 꿈의 무대'를 기다리겠다.	54
11월	가요무대 40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특집 방송이 방영되었음에도, 본인이 일하느라 시청하지 못해 아쉽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1
12월	이웃집 가족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송을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특정 가치와 관점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통적 가족관과 국가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도 충돌 소지가 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부적절하다.	86

4 월별 Top 10 의견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전국노래자랑]	63	어제까지가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었는데, 이날도 결방이 됐다. 타사는 예능 프로그램을 다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정상 편성되길 바란다.
2TV [2024 KBS 연기대상]	32	연기대상은 1년에 한 번 방송하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기다렸다. 제주항공 참사로 편성이 취소되었는데, 얼른 다시 편성되었으면 한다. 방송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2TV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24	해당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문화재에 어떻게 못을 박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촬영에 빠져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라면,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23	김재원 아나운서의 부재가 길어지고 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진행자인데,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니 걱정하고 궁금해하신다. 김재원 아나운서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빠르게 복귀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21	국가 애도 기간이라도 정규 프로그램은 방송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결혼하자 맹꽁아!]	21	내용이 흥미롭고 배우들의 연기가 좋아서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이날 특보 편성으로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KBS는 채널이 두 개이기 때문에, 특보는 다른 채널에 편성하고 일일연속극은 결방 없이 방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1TV [우리말 겨루기]	17	해당 프로그램의 애청자이다. 방송을 엄청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들이 결방이 되어 볼 프로그램이 없다.
1TV [KBS 뉴스특보]	11	본인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기능을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 수신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편파적인 인물이다. 대통령 관련 비판만 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선동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인물을 섭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TV [다리미 패밀리]	11	타 방송사에 비해 KBS 드라마가 재미있다. 해당 드라마의 전개가 마음에 들고 주인공들의 연기도 좋아서 잘 시청했다. 짧게 끝이 나서 아쉽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1TV [사사건건]	9	KBS의 애청자이다. 이날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했는데 너무 편파적이다. 객관적으로 발언해야 하는데, 이 분은 너무 맹목적이다. 중립적인 패널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 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추적 60분]	35	부정선거를 다룬 이날 방송을 시청했고, 실망했다.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 입장만 다뤘다.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뤄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이었다.
1TV [KBS 뉴스 7]	10	지방줄기세포로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본인이 양쪽 관절이 안 좋아서 뉴스에 나온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였고,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
[KBS News]	10	광주 금남로에서 일어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아 보기 불편하다. 실시간 중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8	이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는데, 이 분은 굉장히 좌편향 된 인물이다. 방송에 출연해 진보가 옳다는 식의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편향적인 패널의 의견을 방송하는 것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6	해당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하고 있다. 아이브, 뉴진스 등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게 즐겁고 좋은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설 특집 글로벌 한인 기행 김영철이 간다 2부작]	6	설 연휴에 특집 프로그램들이 다 좋았는데,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재미있게 잘 봤다. 외국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이었는데, 역시 KBS가 다큐멘터리는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철 씨의 구수한 진행도 좋았다.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6	매주 목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앞으로는 결방이 되지 않길 바란다.
1TV [이웃집 찰스]	6	예전에 「인간극장」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던 프랑스 정통 제빵사 부부가 출연해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출연자들이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가고, 버터와 설탕을 넣지 않은 빵이라고 해서 주문해서 먹어보려고 한다. 빵이 맛있게 보였고 방송도 재밌었다.
1TV [전국노래자랑]	6	이날 출연한 일반인들이 노래를 잘했고, 초대가수들도 좋아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강가를 배경으로 촬영했던데, 그 광경도 너무 보기 좋았다. 남희석 씨 또한 워트 있게 진행을 잘한다.
2TV [신데렐라 게임]	5	이날 아시안게임 중계로 해당 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속상했다. 앞으로는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 3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전국노래자랑]	102	교회 다녀와서 노인들이 다 같이 본인의 집에 모여 해당 방송을 시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방송이 시작되지 않아 의아했다. 노인들은 편성 변경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일요일이면 무조건 모여서 시청할 생각만 한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54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결방이 되어, 혹시 종영이 된 줄 알고 놀랐다. 지난주부터 계속 못 보니 답답하다.
1TV [결혼하자 땡콩아!]	40	종영이 다가오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1TV [KBS 뉴스특보]	36	국가 재난 상황인데, 왜 긴급재난방송을 24시간 내내 방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가 위기 단계의 산발 상황인데, 다른 방송사를 찾아봐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특히 KBS만 시청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재난 상황 공유가 꼭 필요하다. 재난 지역에 대한 실시간 상황 보도가 필요하고, 국가 컨트롤타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중 취재해서 보도해야 한다.
2TV [개그 콘서트]	35	해당 방송의 편성 시간이 앞당겨져서 매우 좋다. 일요일 저녁에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전성기 시절부터 해당 방송을 좋아했는데,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 반갑다.
1TV [아침마당]	21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하는 줄 알고, 너무 놀라고 서운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금요일 코너만 하차하는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1TV [결혼하자 땡콩아!]	21	드라마가 방영될 시간에 뉴스특보가 편성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는 결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TV [신데렐라 게임]	18	본인은 지상파 방송만 시청한다. 케이블에 스포츠 채널이 있는데, 왜 지상파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며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드라마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2025 메이저리그 개막전]	16	일본에서 진행되는 야구 경기를 왜 중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한 것도 아닌데,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며 해당 경기를 중계하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2TV [2025 프로야구 개막전]	16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KBO 개막전과 관련해 중계의 공정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LG를 옹호하거나 롯데 선수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LG 트윈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롯데 팬으로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유튜브 뉴스 불만]	78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들 간 균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KBS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들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추측성 내용을 보도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1TV [결혼하자 맹꽁아!]	34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결방 시킨다. 앞으로는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2TV [2025 프로야구]	21	가수 이찬원 씨가 특별 캐스트로 참여했는데, 시청에 불편함을 느꼈다. 올스타전도 아닌 1군 프로야구 정규 경기에 트로트 가수가 캐스터를 맡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문성도 없었고, 오디오 겹침도 심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스포츠 캐스터와 선수 출신이 아닌 연예인의 해설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17	최근 결방이 잦아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
2TV [2025 프로야구]	17	경기를 중계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 방송을 마친다며, 티빙으로 계속 중계한다는 자막이 표기됐다. 티빙은 유료인데,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왜 티빙으로 시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중간에 중계를 끊을 거라면 앞으로 중계하지 않길 바란다.
2TV [개그콘서트]	13	이날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1TV [전국노래자랑]	8	해당 프로그램의 광팬이다. 최근 결방이 잦아 보고 싶었다. 부모님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 가급적이면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2TV [신데렐라 게임]	8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다. 본방송 시청 후 재방송까지 다 시청했다. 이날 최종회가 방송됐는데,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어 감사하다. 이은총(김건우 분) 역할을 맡은 어린이가 연기를 너무 잘했다.
1TV [결혼하자 맹꽁아!]	7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구단수(박상남 분)가 깨어나서 너무 좋았다.
2TV [1박 2일]	5	미나리를 수확하며 퀴즈를 풀어서 삼겹살 먹는 게임을 했다. 초반에 젊은 농부가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확을 잘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출연자들이 삼겹살을 먹기 위해 미나리를 함부로 옮기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미나리를 저렇게 취급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농사짓는 분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 5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개그 콘서트]	30	어린이날 특집 방송에 자녀 두 명과 함께 다녀왔다.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내년에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왁자지껄 아이들의 환호성을 들으니,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하다.
2TV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19	해당 드라마가 흥미로워 재미있게 시청 중인데, 편성 시간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난다.
1TV [가요무대]	14	월요일마다 기다리는 프로그램이다.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하다. 다음 주는 꼭 결방 없이 방송되길 바란다.
1TV [대운을 잡아라]	14	이날 드라마가 결방이 되어 아쉽다.
1TV [인간극장]	9	세 모녀가 된장을 담그는 모습을 잘 봤다. 맛있게 보여서 구매도 하려고 한다.
1TV [대운을 잡아라]	7	KBS는 채널이 두 개인데 왜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로 인해 일일드라마가 결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2TV [여왕의 집]	6	황기만(강성민 분)이 돈 때문에 조카를 유괴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황기찬(박윤재 분)이 형이 아들을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은폐한 점도 보기 불편했다.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고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소재는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2TV [여왕의 집]	6	전 국민이 시청하는 드라마이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도 시청할 수 있는데 불륜을 주제로 드라마를 제작한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는 드라마를 보며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2TV [여왕의 집]	6	내용이 너무나 자극적이다.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내용을 비롯해서, 저녁을 먹으며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에 불편하다. 각박한 세상인데 행복한 드라마를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1TV [인간극장]	5	너무 감사하고 좋은 방송이었다. 시청 내내 눈물이 났다. 두 스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다. 이런 방송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서에 아주 좋을 것 같다.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방송이다.

6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개그 콘서트]	16	이날 방송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오랜만에 박나래 씨와 장도연 씨가 출연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웃었고, 감회가 새로웠다. 방송 시간대도 시청하기에 적절하고 좋다.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 전한다.
2TV [1박 2일]	15	이날 방송 시청했다.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해있는데, 자막에는 '경기 강화'로 표기되어 있다. 수정해 주기 바란다.
1TV [일꾼의 탄생 시즌 2]	9	어머니와 이모님이 너무 기다리던 프로그램인데, 왜 전국 방송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어머님들의 단독방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만 기다리셨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국 방송으로 편성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꼭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세계는 지금 스페셜]	8	외국인이 나와서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현재 투표율' 자막이 해당 방송의 자막을 다 가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위치를 조절하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두 자막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방송을 이해하라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2TV [뮤직뱅크]	8	노래를 좋아해서 자주 본다.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쉽다.
1TV [KBS 뉴스]	7	KBS 시청자이다. 현재 기표 된 투표용지가 밖에 돌아다니는 등 관련 영상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라고 하던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적절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언론에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1TV [대운을 잡아라]	7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앞으로는 결방이 되지 않길 바란다.
2TV [개그 콘서트]	7	해당 프로그램이 다음 주(15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해 종전의 23시대로 편성이 옮겨진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렇지 않아도 편성 시간이 늦어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다가, 21시대로 앞당겨지며 시청이 편해져서 기쁘고 좋았다. 23시대는 결코 좋은 시간대가 아니다. 시청자를 배려해서 편성을 변경하지 않길 바란다.
1TV [인간극장]	7	아침마다 보는 방송이다. 떡을 만드는데 맛있게 보여서 주문하려고 한다. 아이가 넷이라 많은데,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재미있게 시청했다.
2TV [개그 콘서트]	7	장수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를 마치 공놀이하듯 이리저리 편성을 변경하는 점이 불편하다. 일요일 밤 11시에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KBS의 간판인 「개그 콘서트」를 다시 일요일 저녁 9시 대로 고정해 주기 바란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KBS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243	조용필 콘서트 티켓팅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다. 아직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데, 언제쯤부터 티켓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빠른 공지 바란다.
2TV [불후의 명곡]	174	울산에서 녹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울산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비가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 본인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가는 길에 혹은 울산 도착 후 취소 문자를 받게 될까 우려가 된다. 이런 상황이면 제작진이 빨리 판단을 내려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TV [전국노래자랑]	88	어르신들은 해당 프로그램만 기다리고 있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0	출연자 이순실 씨의 무례한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점이 의아할 정도다.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시청하기에 편안한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저런 출연자에게 무엇을 배울지 의문이다. 다른 훌륭한 출연자도 많다. 교체해 주기 바란다.
1TV [열린음악회]	17	부모님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좋아하셔서 매주 일요일마다 꼭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다음 주부터는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1TV [2025 APEC 기획 아침마당]	17	김재원 아나운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난다. 그동안 진행을 너무 잘했는데 왜 떠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슬프다.
1TV [KBS 뉴스특보]	13	전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정규 프로그램 편성이 많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공영방송에서 24시간 특보를 편성해서 재난방송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9	이순실 씨가 유치원생들에게 북한 노래와 북한식 박수를 가르치는 모습이 방송됐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방송에서 수령님, 장군님 등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도 듣기 불편하다. 휴전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이순실 씨의 하차를 부탁한다.
1TV [6시 내고향]	9	KBS만 보는 시청자이다. 특보도 중요하지만, 매일 시청하는 정규 프로그램들도 중요하다. 이날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든다.
1TV [가요무대]	7	본인은 야간근무를 해서 본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그래서 재방송으로 시청하고 싶은데, 이번 주는 편성이 없어 아쉽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 8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25	요즘 불만한 프로그램들이 다 결방해서 속상하다. 앞으로는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2TV [여왕의 집]	23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다. 이날도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일찍 귀가했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앞으로는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2TV [개그 콘서트]	21	편성이 40분 앞당겨져서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었다. 확실히 다음날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었다.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늘 응원한다.
2TV [여왕의 집]	19	너무 잘 보는 드라마이다. 해당 드라마 방송 시간만 기다린다. 이날 결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결방이 되지 않길 바란다.
1TV [TV쇼 진품명품]	16	본방송이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다.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여왕의 집]	16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결방이 되어 아쉽다.
1TV [대운을 잡아라]	15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여왕의 집]	12	해당 드라마가 한창 재미있어지고 있는데, 야구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한국시리즈나 국대 경기도 아닌데 굳이 야구 중계로 인해 드라마를 결방시켜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TV [2025 프로야구]	11	주말도 아닌 평일에 본 방송들까지 결방시키며 프로야구 중계를 편성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볼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평일 야구 중계 편성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여왕의 집]	10	나이 많은 시청자들은 드라마만 기다린다.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 해당 드라마가 결방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10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들 이날 방송을 시청하다가 채널을 돌렸다고 한다. 출연자들이 꼭 품격있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은 지나치게 요란했다.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고 정신이 없어서 시청하기 힘들었다.
2TV [1박 2일]	9	얼굴에 쌀을 붙이고 던져서 그릇에 넣는 미션이 방송됐다. 아직도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국민들이 많은데, 먹는 쌀로 게임을 하는 장면은 거부감이 든다.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장면은 내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1TV [KBS 뉴스 9]	7	이날 뉴스를 시청했는데 김정은 관련 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됐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이 얼마나 있다고, 매일같이 김정은 관련 보도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TV [한국인의 밥상]	7	KBS만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내용이 좋다. 착실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방송이다. 한국적인 음식들을 다루는 점도 좋다.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6	최초의 기획의도와 맞지 않는 출연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아나운서실 홍보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작위적이고 과한 상황과 언행이 보기 불편하다. 다른 보스들은 어느 정도 출연 후 나오지 않는데 아나운서들이 계속 출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TV [살림하는 남자들]	5	편성이 바뀐 후 방송을 안 보게 된다. 방송을 시청하고 나면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기에 시청하기 어렵다. 본인뿐 아니라 친구들도 편성에 대한 불평이 많다. 다시 이전 시간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TV [불후의 명곡]	5	해당 방송분에 대한 재방송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본인은 수신료를 내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TV를 시청할 수 없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게 됐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5	은우와 정우의 팬이다. 그런데 최근 은우와 정우가 출연하지 않고 있다. 은우와 정우가 출연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빨리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
2TV [여왕의 집]	5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내용이 흥미로워 재미있게 시청했다. 이날 방송을 끝으로 종영되어 너무 아쉽다.
1TV [대운을 잡아라]	4	자살도 많고 살인도 많은 세상인데 따뜻한 가족 드라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는 친구들끼리 속고 속이는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불신의 세상에서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아이들에게도 보라고 할 수가 없다. 설령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가족적이고 따뜻한 정이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10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아침마당]	54	이날 '도전 꿈의 무대' 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TV를 틀어놓고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걱정이 됐다. 앞으로는 결방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다음 주 '도전 꿈의 무대'를 기다리겠다.
1TV [추석 특집 다큐 K-가곡 슈퍼스타 비긴즈]	20	가족들과 추석을 보내며 시청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오랜만에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감동이 이어졌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KBS 덕분에 추석에 큰 선물을 받았다. 감사하다.
2TV [광복80주년 KBS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16	웅장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무대가 환상적이었고, 시청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마저 들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무대를 너무 잘했다. 자랑스럽다.
2TV [친밀한 리플리]	10	이전 일일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서 흥미 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일요진단 라이브]	10	진행자가 발언권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또한 두 패널이 서로 발언 중에 끼어들고 서로의 말을 끊는 등 토론 예의를 지키지 않는데, 진행자가 그럴 때 중재하지 않는 점도 보기 불편하다.
1TV [2025 추석장사 씨름대회]	8	씨름을 좋아한다. 이날 중계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2TV [광복80주년 KBS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8	많은 분들이 본방송을 시청했음에도 다시 보고 싶다고 한다. 본인이 지인 대표로 전화했다. 가왕의 무대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았다.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고 있으니 꼭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2025 프로야구]	7	스포츠 채널도 있는데, 왜 매년 KBS 2TV에서 야구를 편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야구만 편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구는 정해진 시간도 없고 끝도 없이 진행되는데,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야구를 중계하는 점이 불편하다.
1TV [6시 내고향]	6	이날 「6시 내고향」이 결방되어 너무 속상했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마리와 별난 아빠들]	5	극이 10회에 접어들면서 점점 코믹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내용의 전개가 전작에 비해 더 특별하고 재미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다. 시청률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가요무대 40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21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특집 방송이 방영되었음에도, 본인이 일하느라 시청하지 못해 아쉽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일요진단 라이브]	9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했다. 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를 섭외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을 깎아내리기만 하는데, 견제할 사람 없이 한동훈 전 대표만 섭외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5	나이가 많아서 여행을 할 수 없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구경을 다 하고 있다. 이날 결방이 되어 시청을 하지 못해 아쉽다.
2TV [1박 2일]	5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했다.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데, 이날 방송이 세계적으로 방송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콘셉트로 계속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생로병사의 비밀]	5	건강에 유익한 방송이라 항상 챙겨 보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3주 동안 결방이라 불편하다. 앞으로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1TV [아침마당]	4	여성 진행자가 혼자 진행하듯 진행한다. 아무리 선배이지만 남성 진행자와 주 거니 받거니 해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액션도 너무 크다. 이런 부분 시정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4	아침부터 방송이 시끄럽다. 시장도 아니고 너무 수선스러워서 머리가 아플 정도다. 진행도 매끄럽지 않다. 출연자도 시끄럽고 패널도 산만하다. 교양 프로그램에 맞게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4	진행자 남희석 씨가 진행을 너무 잘한다.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출연자들이 가져온 먹거리를 함께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
1TV [아침마당]	4	이날 '미스트롯3' 출연자인 미스김이 1승을 차지했다. 해당 코너의 취지는 무명가수에게 무대를 선사하고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유명세를 얻은 가수가 출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무명가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TV [전국노래자랑]	4	예전에는 전화로도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무언가를 설치하라고 하는 등 쉽지 않았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전화로도 방청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이웃집 가족들]	86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송을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특정 가치와 관점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통적 가족관과 국가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도 충돌 소지가 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부적절하다.
2TV [살림하는 남자들]	39	'트롯 야생마 신승태' 편이 너무 재미있었다. 신승태 씨의 입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에너지가 넘쳐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해당 방송의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된다. 한 회 출연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긴 만큼 고정 출연으로 이어진다면 매주 색다른 재미와 활력을 선사할 것으로 확신한다.
1TV [다큐 인사이트]	37	지난 목요일(2025. 11. 27.(목))에 방송되었던 '불탄 옥상 1부'에 이어, 내년 4월 방송 예정이었던 2부가 취소되었다. 해당 기업의 행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다큐였고, 많은 시청자가 2부를 기다리고 있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24	토요일 오전마다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1TV [성탄 특선영화 무명]	22	영화관에서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영화인데, KBS에서 편성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낯설지만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다.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가 알게 되어 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게 될 것 같다. 고맙다.
1TV [아침마당]	16	'미스트롯3' 출연자인 미스김이 우승을 했다. 이미 타 방송에 출연해서 실력을 검증받았고, 그로 인해 행사도 다니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인데, 그야말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대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런 프로 가수가 출연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출연한 무명 가수들이 역울할 것 같다.
2TV [1박 2일]	14	조세호 씨의 출연 여부가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영방송에 논란이 있는 출연자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세호 씨의 하차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웃집 가족들]	11	국민적 합의가 없는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보기 불편하다. 또한 특정 가치와 관점을 홍보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전통적 가족관과 국가의 저출생 정책 방향과도 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
1TV [인간극장]	7	아침마다「인간극장」을 기다리는 시청자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깜짝 놀랐다.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속상하다. 대신「아침마당」의 노래 코너가 편성되었는데, 공영방송이 재미는 안 키우고 배짱이만 키우는 느낌이 든다.
2TV [말자쇼]	7	오랜만에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본인이 육아 중인데, 공감이 되고 위로도 많이 받았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오래 가길 바란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명예훼손, 성명권, 초상권, 음성권, 모욕죄)이 침해된 내용

△ 방송제작의 공명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명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2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 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 논란, 논거 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 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 피해, 외주제작사 관련 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 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 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 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 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 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 요청, 심층보도 요청, 후속보도 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 제언, 보도 제언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KBS 시청자의견 일일보고서 [3.24]

■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000, 0000) [작성: (주)케이티아이에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5. 3. 21.(금) 07:00 ~ 2025. 3. 23.(일) 22:00
- 상담건수: 1,605건

II. 주요의견 내용

○ 출연자 호평(3명)

- 프로그램명 :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꽃길을 함께 걸어갈 분을 찾습니다’
- 방송일시 : 2025. 3. 22.(토) 1TV (08:30-09:30)

이날 방송 재미있게 시청했다. 본인에게 혼자가 된 친구가 있다. 마침 이날 출연자가 공개구혼을 했는데, 본인의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앞으로도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 결방 제언(102명)

- 프로그램명 : 「전국노래자랑」
- 방송일시 : 2025. 3. 23.(일) 1TV (12:10-13:30)

교회 다녀와서 노인들이 다 같이 본인의 집에 모여 해당 방송을 시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방송이 시작되지 않아 의아했다. 노인들은 편성 변경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일요일이면 무조건 모여서 시청할 생각만 한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1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이슈 청원 : ‘2025 프로야구 개막전’ 1건.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60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921	50	-	-	634	1,60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808	491	22	-	-	284	1,60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87	1,318	-	1,60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264	7	126	208	1,605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한 바퀴」 - 결방 제언 ○ 「전국노래자랑」 - 결방 제언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7」 - 진행자 호평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출연자 제언 ○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출연자 호평 ○ 「TV쇼 진품명품」 - 방송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요무대」 - 시청자 참여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백천의 백 뮤직」 - 진행자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노래자랑」 - ‘편성 시간’ 문의 127건 ○ 「6시 내고향」 - ‘갓 문의’ 연락처 문의 89건 ○ 「2TV 생생정보」 - ‘소구레국밥’ 연락처 문의 34건 ○ 「동네 한 바퀴」 - ‘옥동 미나리’ 연락처 문의 27건 ○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출연자’ 연락처 문의 23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4건 ○ 「수신기술」 문의 3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40건 ○ 「수신료」 문의 4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5건 ○ 「전화교환」 문의 10건 ○ 「주차」 문의 4건 외 5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208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 문의, 프로그램 구매 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출연자 제언	<p>○「6시 내고향」(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월-금) (18:00-19:00) - 공영방송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시청자이다. 아나운서들은 진행을 잘하는데, 패널들은 말이 빨라 알아듣기 어렵다.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패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란 것은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박또박 말을 했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오**</p>
출연자 호평	<p>○「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꽃길을 함께 걸어갈 분을 찾습니다’(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3. 22.(토) 1TV (08:30-09:30) - 이날 방송 재미있게 시청했다. 본인에게 혼자가 된 친구가 있다. 마침 이날 출연자가 공개구혼을 했는데, 본인의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앞으로도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TV쇼 진품명품」(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3. 23.(일) 1TV (11:10-12:00) - 우리가 미처 소중한 귀중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물건들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자주 시청하고 있다. 본인의 집에 고서가 여러 권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감정을 통해 진가를 알아보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연예.오락]	
시청자 참여 제언	<p>○「가요무대」(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월) (22:00-22:55) -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만, 본인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인터넷하는 방법을 배워보기도 했지만, 막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방법을 모르겠다. 방청하고 싶은데 인터넷 참여는 어려우니, 전화로도 방청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라디오]	
진행자 호평	<p>○「임백천의 백 뮤직」(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R (월-일) (12:00-14:00) - 진행자 임백천 씨의 입담이 좋다. 금요일에 반말로 진행하는 코너가 있는데 재미있어서 좋아한다. 선곡도 다 좋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46 건</p>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우리말 겨루기」
 - 해당 프로그램의 애청자이다. 방송을 엄청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들이 결방이 되어 볼 프로그램이 없다. <1월 2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어제까지가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었는데, 이날도 결방이 됐다. 타사는 예능 프로그램을 다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정상 편성되길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대하드라마」
 - '대하드라마'하면 KBS가 떠오른다. 최근 대하드라마가 제작되지 않아 아쉽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하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서부지법 폭력사태 현안질의-법사위-」
 - KBS만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미 뉴스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계방송까지 편성해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을 위로 하진 못할망정, 지나친 정치 방송 편성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1TV 「생활의 발견 스페셜」
 - 재방송 편성이 지나치게 많다. 같은 시간대 2TV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이 방송되고 있다. TV를 틀 때마다 재방송이 방송되니 볼 게 없는 기분이다.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송을 만들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2월 3일 보고서>
- 1TV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 해당 프로그램 방영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청했다. 나이가 드니 옛날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미있고 이해되는 내용이 많다.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재방송을 편성해 주면 재미있게 시청할 것 같다. <2월 5일 보고서>
- 1TV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 아시안게임에 관심이 많다. 이번 아시안게임도 잘 보고 있다. 중계해 주어 감사하다. <2월 10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계엄의 기원 2부'
 - 이렇게 중요한 방송을 결방시켜 마음이 아프다. 시청자들의 알권리가 중요한데, 갑자기 결방이 되어 안타깝다. <3월 4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특집 2부작 리더」'2부'

- 깜빡하고 방송을 놓쳤다.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1TV 「팔도밥상 스페셜」

- 오전에 TV를 틀자 「동네 한 바퀴」재방송과 「팔도밥상 스페셜」이 연속으로 방송됐는데, 재방송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오전부터 저녁까지 방송되는 뉴스의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오전에 봤던 뉴스가 저녁에 그대로 나오는데,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모르는 것, 새로운 정보 등을 얻기 위해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다. 차라리 뉴스 편성을 줄이고, 그 시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1TV 「특별 생방송 성금모금방송」

-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큰 화를 입었다. KBS는 재난 주관 방송사이니까 성금 모금 방송을 제작해 주었으면 한다. <3월 31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 '4.3 희생자 추념식' 중계방송을 잘 시청했다. '한 핏줄 한겨레 싸우지 마라'가 인상적이었다. <4월 4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왜 이런 방송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세금을 들여 특검을 했지만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고,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했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기에 일반인들은 거부감이 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방송국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 <4월 18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어버이날 선물'

- '스승의날'인데 왜 '어버이날' 관련 방송을 편성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면 서운할 것 같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산 너머 남촌에는」

- 농촌 드라마로, 감동이 있는 작품이다. 해당 드라마를 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본인만 다시 시청하고 싶은 것은 아닐 것이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1TV 「일꾼의 탄생 시즌 2」

- 어머니와 이모님이 너무 기다리던 프로그램인데, 왜 전국 방송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어머님들의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만 기다리셨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국 방송으로 편성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꼭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우리 집 금송아지」

- 남원에 거주하는 시청자이다. 마을 주민들이 소장한 옛 물건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불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편성이 바뀌었다. 수요일 저녁에서 월요일 밤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간에 시청자들은 잔다. 보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원래대로 시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6월 18일 보고서>

○ 1TV 「TV소설 순옥이」

- 황동주 배우가 출연했던 「TV소설 순옥이」를 다시 시청하고 싶다. KBS 다시보기 서비스에서도 찾을 수 없고, 웨이브에서 유료로라도 보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주변에서도 해당 드라마에 대해 좋은 평들을 하는데,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쉬워한다. KBS에서 해당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6월 2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5주년 6.25 전쟁 행사」

-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울었다. 군인들의 모습 등 행사가 멋있었다. <6월 26일 보고서>

○ 1TV 「KBS 스포츠 중계석」

-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 주었으면 한다. 다음날 출근이나 등교를 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보기 불편하다. <6월 3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이재명 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중계방송을 잘 시청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편성을 끊고 다른 방송으로 넘어갔다.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는데 중간에 방송을 끊어 아쉬웠다. <7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전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정규 프로그램 편성이 많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공영방송에서 24시간 특보를 편성해서 재난방송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1TV 「토지」

- 방영 당시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다. 이 더운 여름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7월 29일 보고서>

○ 1TV 「광복 80주년 경축 행사·국민 임명식」

- 이전 대통령들은 국민 임명식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 정부에서 하는 임명식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이 많은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나라 어지러운 것을 잊곤 하는데, 드라마를 결방시키면서 임명식을 편성한 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한식탐험대」

-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9월 10일 보고서>

○ 1TV 「국회 국정감사」

- 80대 시청자이다. 부녀회 대표로 전화했다.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시청하기 불편했다. 정규 프로그램 시청하고 싶은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방송 편성하지 않길 바란다. <10월 14

일 보고서>

○ 1TV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 전국체전 개회식을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개회식이 이전과 확 달라진 느낌이 든다. 무대장식 등 모든 것이 좋았다. 잘 시청했다. <10월 20일 보고서>

○ 1TV 「후아욱-아이는 누가 키울래?」[부산총국]

- KBS는 지난해 하반기에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출범하고 정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제작 및 편성하고 있다. 부산에서만 방송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방송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 <10월 24일 보고서>

○ 1TV 「백투더뮤직 시즌 2」[전주총국]

- 음악을 좋아하는 시청자인데, 해당 프로그램이 자정 가까이 되어 끝나다 보니 집중해서 시청하기 어렵다. 편성을 조금 앞당겨 주면 좋을 것 같다. <10월 27일 보고서>

○ 1TV 「2025 의성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 씨름을 굉장히 좋아하며, 씨름 경기를 보는 것이 낙인 시청자이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씨름대축제 편성을 기다렸다. 잘 시청하겠다. <11월 24일 보고서>

○ 1TV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

- 서로 싸우기만 하는 이런 정책토론회는 편성하지 않길 바란다. 토론이 아닌 싸움으로 여겨진다. 국민은 이런 방송을 시청하면 피곤하다. <11월 27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

- 지난 목요일(2025. 11. 27.(목))에 방송되었던 '불탄 옥상 1부'에 이어, 내년 4월 방송 예정이었던 2부가 취소되었다. 해당 기업의 행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다큐였고, 많은 시청자가 2부를 기다리고 있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12월 5일 보고서>

○ 1TV 「성탄 특선영화 무명」

- 영화관에서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영화인데, KBS에서 편성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낯설지만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다.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가 알게 되어 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게 될 것 같다. 고맙다. <12월 26일 보고서>

○ 2TV 「2024 KBS 연기대상」

- 연기대상은 1년에 한 번 방송하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기다렸다. 제주항공 참사로 편성이 취소되었는데, 얼른 다시 편성되었으면 한다. 방송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1월 2일 보고서>

○ 2TV 「디어엠」

- 드라마 제작 부서에 「디어엠」의 편성을 요청한다. 대학가 방학 시즌이기에 설레는 청춘물을 방영하면 좋을 것 같다. 많은 배우들과 제작진이 함께 만든 드라마인데 편성이 미뤄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1월 20일 보고서>

○ 2TV 「TV 유치원」

-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전 8시쯤 일어나서 눈 비비며 아침 먹고 등원하기 바쁘다. 누구를 위한 편성인지 의문이 든다. <1월 24일 보고서>

○ 2TV 설 특선영화「파묘」

-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편성해 주어 잘 시청했다. 무서웠지만 재미있게 봤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편성 시간이 늦어서 온 가족이 함께 보기 힘들다. 거의 유일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 웬만하면 시청하려고 하지만, 편성이 너무 늦어 아쉽다. 시간대를 조정해 오후 9시, 늦어도 10시에는 방송하면 좋겠다. <2월 18일 보고서>

○ 2TV 「설 특집 트롯대잔치」

- 설 특집으로 방송됐던 해당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이찬원 씨가 진행을 잘했고 방청객들도 즐거워했으며 시청자들도 좋아했던 방송이다. 파일럿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다. <3월 13일 보고서>

○ 2TV 「원지동 블루스」

- 해당 드라마가 종영한 지 30년이 흘렀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추억의 드라마로 손꼽고 있다. 재방송 편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2TV 「KBS 특선영화」

- 다음 특선영화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데뷔작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이다. 일본 미디어 예술 100선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5위를 차지한 작품이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재능을 보여주기도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국어 더빙으로 꼭 방영되었으면 좋겠다. <3월 28일 보고서>

○ 2TV 「2025 프로야구」'-LG : SSG - 인천 -'

- 경기를 중계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을 마친다며, 티빙으로 계속 중계한다는 자막이 표기됐다. 티빙은 유료인데,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왜 티빙으로 시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중간에 중계를 끊을 거라면 앞으로 중계하지 않길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2TV 「공부와 놀부」

- 해당 방송의 시청자이다. 7살 자녀와,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퀴즈를 함께 풀며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 10시는 아이들이 시청하기엔 늦은 시간이다. 오후 7시나 8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편성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2TV 「2025 MLB 코리안 빅리거 출전경기」'보스턴 : 샌프란 시스코'

- 야구팬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송이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해 주는 것은 굉장한 팬 서비스이다.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경기를 생중계해준다면 수많은 야구팬들이 박수를 보낼 거다. <6월 23일 보고서>

- 2TV 「셀럽병사의 비밀 스페셜」
 - 오후 8시 30분은 황금시간대인데 왜 재방송이 편성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시청자들은 황금시간에 재방송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했다. <7월 3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여름철이고 날씨가 더워졌다. 오후 3시 정도에 이전에 방송했던 「전설의 고향」을 다시 편성해 주면 좋겠다. <7월 7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 스페셜」
 - 본인을 포함해 이웃에 사는 엄마들도 박보검 씨를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시청하길 원한다. 그러나 본방송도 늦은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시청하지 못하는데, 스페셜 방송마저 늦은 시간에 편성되어 시청하기 어렵다. 재방송이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편성해 주기 바란다. <7월 15일 보고서>
- 2TV 「2025 MLB 코리안 빅리거 출전경기」
 - 주말 오전,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할 때 메이저리그 경기를 편성해 준다. 예전 스포티비에서 독점 편성하던 것을, 이제는 KBS에서도 중계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 <7월 31일 보고서>
- 2TV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어바웃타임」 '10년 전으로의 여행 72시간'
 -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이 다시 제작되기를 원한다. KBS가 추구하는 수신료의 가치에 부합되는 방송이다.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약속인데, 10년이 지나 재회가 되었다는 부분이 감동적이었다. <8월 25일 보고서>
- 2TV 「해피투게더」 '쟁반노래방'
 -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석특집으로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었으면 한다. 이전에 방송했던 「해피투게더」의 쟁반노래방 같은 코너를 특집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9월 18일 보고서>
- 2TV 「광복80주년 KBS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 많은 분들이 본방송을 시청했음에도 다시 보고 싶다고 한다. 본인이 지인 대표로 전화했다. 가왕의 무대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았다.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고 있으니 꼭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0월 15일 보고서>
- 2TV 특선영화「스즈메의 문단속」
 - 공영방송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일본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황금시간에 굳이 만화를 방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기가 막힌다. <12월 22일 보고서>
- 2R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 본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 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서는 콩앱으로만 청취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은 들을 수 없게 됐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취자들도 라디오로 청취할 수 있게 전국방송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다. <2월 12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구수한 옛날 노래 선곡도 좋고, 출연자들의 이야기 듣는 것도 재미있다. 그러나 편성 시간이 너무 짧다. 들을만하면 끝나는 기분이다. 편성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 <3월 21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본인이「생방송 심야토론」을 복원해 달라는 의견을 여러 번 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후속 방송이 제작되지 않아 아쉽다. 나라에 문제가 많으니 「생방송 심야토론」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1월 10일 보고서>

○ **1TV 「중견만리 2024」**

-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용이 유익했는데 중영되어 아쉽다. 다시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를 찾고 싶다. 연락이 끊겨 생사도 알 수 없다. KBS에서 사람을 찾아주는 방송을 다시 제작해 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현재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으니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었으면 한다. 최원정 아나운서의 진행이 좋았는데, 최원정 아나운서가 다시 진행을 맡길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일반인이 참여하는 노래 프로그램이 적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노래 부를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가족오락관」**

- 가족끼리 시청하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이 다시 제작되면 좋겠다. 허참 씨가 별세하셨으니 새로운 진행자를 섭외해 다시 제작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1TV 「생명최전선」**

-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시청하고 싶다. <2월 19일 보고서>

○ **1TV 「명화극장」**

- 어릴 때 시청했던 추억의 프로그램이다. 요즘 OTT 등 수많은 채널이 있지만, 「명화극장」에서 보여줬던 명화들은 찾을 수 없다.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이 소개했다. 후속 방송을 제작하면, 해당 방송에 추억이 있는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할 것 같다. <4월 30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 정권에 따라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 시사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좋겠고, 중영되는 일 없이 꾸준히 방송되었으면 한다. <5월 15일 보고서>
- 1TV 「소비자리포트」
 -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KBS에 이런 일을 고발할 프로그램이 없으니,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1TV 「야생여정」
 - KBS에서 자체 제작했던 동물 다큐멘터리인데, 평화로운 동물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동물들이 야생에서 건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우기에 어떻게 비를 피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었다. 명작이었는데 폐지되어 아쉽다. 시즌 2로 다시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6월 19일 보고서>
- 1TV 「TV 책을 말하다」
 -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 그런데 방송에서 책을 소개하면 한 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신간 중에 좋은 책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작가가 많다. 시즌 2를 제작해서 책에 대해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6월 30일 보고서>
- 1TV 「명작 스캔들」
 - 2011년에 방송했고, 최원정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다. 조영남 씨가 출연해서 명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재미있게 시청했다. 요즘에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프로그램밖에 없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 <7월 31일 보고서>
- 1TV 「우리 집 금송아지」
 - 해당 방송이 종료되어 아쉽다. 다시 제작했으면 좋겠다. <8월 20일 보고서>
- 1TV 「전국이장회의」
 - 본인은 시골 농부이며, 방영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다. 일주일 일하고 보면 삶의 위안이 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 주면 좋겠다. <9월 1일 보고서>
- 1TV 「UHD 역사스페셜」
 - 방영 당시 가족들과 함께 기다렸다 시청했던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역사에 대한 기억이 다듬어지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잃어버린 역사를 되살리는 계기도 됐다.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고 있으니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0월 20일 보고서>
- 1TV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 동물을 좋아하는데, 2004년에 중영이 되어 아쉽다. 다시 보고 싶으니 제작해 주기 바란다. <11월 3일 보고서>
- 1TV 「사람과 사람들」
 - 방영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출연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출연자들의 근황을 방송

에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11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바둑왕전」

- 요즘 바둑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서구권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둑 관련 프로그램을 없애버린다면, 바둑의 명맥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KBS에서는 시청률과 상관없이 바둑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바둑은 학생들의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된다. <12월 24일 보고서>

○ 2TV 「홍김동전」

-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아쉬운 프로그램이다. 아직도 SNS 상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다. 시청자들이 '가장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 'KBS에서 유일하게 시청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즌1 출연진 그대로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부탁한다. <1월 6일 보고서>

○ 2TV 「싱크로유」

-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다. 아이가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한다. 유튜브로 들어놓고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춘다. 수십 번을 본 것 같다. 제발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

- K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연예가 중계」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작비가 문제가 된다면, 연예인이 아닌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섭외해 제작했으면 한다. <1월 14일 보고서>

○ 2TV 「더 라이브」

- 좋아했던 프로그램이고, 시청률도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할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2TV 「혼자서도 잘해요」

- 종영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배우 중에서 새로운 초롱 언니를 섭외해서 후속 방송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 방송을 요청한다. 기존에 했던 코너들을 그대로 이어가 주었으면 한다. 후속 방송 제작에 대해 꼭 검토해 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2TV 「스모킹 건」

- 해당 방송을 잘 보고 있는 KBS 시청자이다. 최근 성 착취방의 총책 김녹완이 잡혔다. 피해자 수가 조주빈의 피해자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보고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다뤄주었으면 한다. 더불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뤄주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방영 당시 재미있게 시청했다. 최대한 빨리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2월 13일 보고서>

○ 2TV 「가을동화」

- 재미있는 드라마가 제작되었으면 한다. 예전에 방영했던 「가을동화」를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돌려보고 있다. 젊은 배우들을 섭외해서 리메이크해도 좋을 것 같다. <2월 14일 보고서>

○ 2TV 「혼자서도 잘해요」

- KBS 2TV에서 방송했던 어린이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초롱 언니를 섭외해서 후속 방송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2TV 「꼬꼬마 텔레토비」

-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방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즘 볼만한 애니메이션이 없다. 엄마와 이모가 옛날에 봤던 텔레토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3월 10일 보고서>

○ 2TV 「오래된 만남 추구」

- 일주일 내내 해당 방송만 기다리는 시청자인데, 종영이 되어 속상하다. 특히 이영자·황동주 씨 커플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3월 19일 보고서>

○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 본인은 기초수급자로, 백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해당 방송을 통해 절약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1인 가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4월 10일 보고서>

○ 2TV 「동물은 훌륭하다」

- 가족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시청자이다. TV를 통해서라도 보고 싶은데,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외롭고 우울하다. 빨리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5월 22일 보고서>

○ 2TV 「빨룬티어」

- 축구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타 방송사에는 축구 예능이 있는데, KBS에는 해당 방송 종영 후 축구 예능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축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6월 2일 보고서>

○ 2TV 「공부와 놀부」

-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왜 종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갑자기 종영이 되어 황당하다.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2TV 「트로트 전국체전」

- 요즘 KBS에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트로트를 좋아한다. 타 방송사에는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트로트 전국체전」처럼 트로트 전문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면 좋겠다. <9월 8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감명 깊게 시청했던 프로그램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했고, 진행자의 설명도 좋았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다시 보고 싶다. <12월 10일 보고서>

○ 1R 「바른 말 고운 말」

- 머리카락에 대해 '얇다', '두껍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머리카락은 '가늘다', '굵다'로 표현해야 한다. 잘못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다뤄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은가은 씨가 진행을 잘해서 종종 칭취한다. 그런데 칭취자가 전화로 노래자랑을 하는 등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11월 6일 보고서>

○ 3R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 여러 가지 공감되는 이야기와 이주민들의 각자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김태규 아나운서가 진행을 잘했는데 종료되어 아쉽다. 현재 재방송을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 <12월 31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드라마「대운을 잡아라」

- 드라마가 너무 감정적이고 진실한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씁쓸하다. 돈 앞에서는 우정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손창민(한문철 역)이 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데, 복권 당첨 시 반 씩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투자 사기꾼도 다시 등장했으니 빨리 투자금도 찾고 처벌하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 <6월 20일 보고서>

- 등장인물이 로또에 당첨이 된다는 설정이 황당하고, 일반적이지 않다. 학생들도 보는 시간인데, 이런 황당한 설정이 보기 안 좋다. 서민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7월 28일 보고서>

- 자살도 많고 살인도 많은 세상인데 따뜻한 가족 드라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는 친구들끼리 속고 속이는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불신의 세상에서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아이들에게도 보라고 할 수가 없다. 설령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가족적이고 따뜻한 정이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9월 1일 보고서>

○ 1TV 일일드라마「마리와 별난 아빠들」

- 예전에는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 요즘은 시청률이 예전 같지 않은데, 드라마의 질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극적인 내용도 없고 재미가 덜하다. 배우와 내용을 더 추가해서 더 재미있게 제작해 주기 바란다. <11월 12일 보고서>

- 드라마가 조금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초반에 시청률이 저조했는데, 더 재미있어진다 면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다. 내용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어서 제작해 주기 바란다. <11월 24일 보고서>

- 해당 드라마는 병원을 무대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인데, 해당 드라마에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그려내지 않고 의사들의 갈등만 그려내고 있어 안타깝다. 매번 싸움과 폭력으로 가득한 드라마만 제작된다는 시청자 불만이 많은데,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12월 19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신데렐라 게임」**

- 드라마에서 벌어졌던 범죄와 비슷한 범죄를 뉴스에서 보곤 한다.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이나 범죄 관련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마치 보고 배우라는 것 같아서 시청하기 불편하다. 보다 교육적인 방송이 되어주기 바란다. <월 일 보고서>
- 어린 이은총(김건우 분)을 엄마 같은 구하나(한그루 분)와 생이별 시키는 내용이 방송됐다.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내용은 보기 불편하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자주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기 안 좋다. <3월 6일 보고서>
- 요즘 아이가 귀한 시대인데, 최명지(지수원 분)·윤세영(박리원 분) 모녀가 이은총(김건우 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다. 내용이 너무 흥흥하다. <4월 3일 보고서>
- 최명지(지수원 분)가 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명지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쪽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4월 24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드라마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날도 조폭들이 등장했는데, 재미있게 시청하다가도 이런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보기 불편해진다. 시청자들이 보고 배울까 우려된다. <4월 15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여왕의 집」**

-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 방송에서 젊은 남녀가 침대에 있는 장면을 내보내서 보기 불편했다. KBS라면 적어도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는데, 손쉽게 불륜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점이 좋지 않다. 앞으로는 내용을 순화해 주기 바란다. <4월 30일 보고서>
- 황기만(강성민 분)이 돈 때문에 조카를 유괴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황기찬(박윤재 분)이 형이 아들을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은폐한 점도 보기 불편했다.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고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소재는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5월 9일 보고서>
- 전 국민이 시청하는 드라마이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도 시청할 수 있는데 불륜을 주제로 드라마를 제작한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내고,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는 드라마를 보며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5월 19일 보고서>
- 강세리(이가령 분)가 불륜에 사기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강재인(함은정 분)의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청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 <6월 4일 보고서>
- 실제 발생하는 사건들과 흡사한 범죄가 소재로 사용된다. 이날도 강세리(이가령 분)가 강재인(함은정

분)의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강재인까지 죽이려고 했다.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우려된다. <7월 21일 보고서>

- 요즘 젊은 사람들이 끔찍한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에서도 너무 끔찍한 사건이 많이 나와서 시청하다가 기절할 뻔했다.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시청한 후 따라 할 수도 있다. 공영방송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에 이렇게 잔인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좋지 않다. <9월 11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화려한 날들」

- 주말드라마라면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드라마는 온 가족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무서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 웃을 수가 없다. 남녀 주인공도 표정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연기를 못한다. 감초 역할 배우가 없는 점도 아쉽다. <8월 19일 보고서>
- 주말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약탈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참 보기 좋았는데, 기어이 교통사고로 조옥례(반효정 분)를 사망하게 만드는 전개를 보며 허탈함을 느꼈다. 또 예고편을 보니 박성재(윤현민 분)에게 불운이 닥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다. <12월 9일 보고서>

○ 2TV 토일 미니시리즈「은수 좋은 날」

- 소재와 전개가 공영방송에서 다루기엔 너무 자극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급격하게 마약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마약 소재가 나오는 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9월 23일 보고서>
-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에 마약 소재 방송을 하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 마약을 판매해서 쉽게 돈을 번다는 설정과,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술강사가 마약 판매상이라는 설정도 공영방송의 드라마 소재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9월 30일 보고서>

| 4. 출연자·진행자 |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출연자들의 경험담과 옛이야기를 들으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 고마운 마음으로 시청 중이다. 진행자들의 재치와 덕담 역시 너무 좋다. 다만 '시니어'라는 나이에 못 미치는 젊은 친구들이 출연해서, 마치 시니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든다. 또한 공감도 되지 않는다. 칠십 대 이하 출연자는 섭외하지 않았으면 한다. <1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본인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기능을 하라고 독려하기 위해 수신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편파적인 인물이다. 대통령 관련 비판만 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선동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인물을 섭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기만 하는데,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운동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이상호 전 의원이 너무 편파적으로 발언해서 듣기 안 좋았고, 박형준 시장이 발언할 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이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만 발언을 하기 때문에 듣기 불편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에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물을 섭외해야 한다. 또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마치 녹음기를 튼 것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김나나·김승휘 앵커가 진행을 참 잘한다. 덕분에 뉴스를 항상 고맙게 잘 시청하고 있다. <1월 23일 보고서>

○ 1TV 「설 특집 글로벌 한인 기행 김영철이 간다 2부작」

- 오랜만에 김영철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꼭 시청하고 싶었다. 김영철 씨의 진행이 참 좋았고, 내용도 재미있고 유익했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70대 시청자이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과하다고 한다. 활기차게 방송을 끌어가는 것은 좋지만, 시청자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많고 리액션도 지나치다. 추임새 또한 과하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김재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너무 잘한다. 출연진들을 배웅하는 모습, 방청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들을 배려하는 모습 등 항상 겸손하다.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시청자를 실망시키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시청자들에게 용기도 준다. 감사하다. <2월 2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이전과 다르게 요즘은 재미가 다소 떨어진다. 크게 유명하지 않은 가수 위주로 섭외가 이뤄져서 그런 것 같다. 조명섭 씨 등 고령층이 좋아하는 가수 위주로 섭외해 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10년 가까이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패널이 있다. 진행자들도 교체가 되는데, 출연진은 왜 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하다. 그러다 보니 매번 같은 소리를 한다. 5년 이상 출연하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로 교체해 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착각의 늪, 알고리즘 의존은 왜 위험한가'

-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출연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다. 그러한 난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민감한 시기에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

겠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 최불암 씨가 출연하지 않아 속상하다. 다른 진행자가 대타 진행을 맡으면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 최불암 씨의 음성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 기다리고 있으니 빠르게 복귀해 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김재원 아나운서의 진행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진지하고 경청하는 자세는 좋지만, 진행에 유연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날 정혜선 배우가 살아온 이야기를 섹션 별로 나눠서 들려주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인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중간중간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하자며 말을 끊었다. 파도의 흐름을 타듯 유연하게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3월 19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이날 방송에 가수 조영남 씨가 출연했다. 그림 대작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을 왜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월 1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

- 산불 피해 관련 방송에 김혜영 씨 등, 왜 연예인과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게 여겨진다. <4월 2일 보고서>

○ 1TV 「**700회 특집 한국인의 밥상**」

- 진행자가 최수종 씨로 교체됐다. 이 방송을 시청한 시장 사람들이 다들 진행자 선정에 아쉬워했다. 오랜 세월 흘러온 방송인 만큼,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의 쓴맛과 허기짐이 무엇인지 아는 진행자가 맡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최수종 씨의 진행은 재미가 떨어진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긴 인물로, 많은 의원 중에 하필이면 그런 의원을 섭외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공정하지 않은 섭외인 것 같다. <6월 5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우리 집 ‘왕빠’**

- 항상 오전 7시 50분에 「인간극장」을 시청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도 사람이 경기도로 간 이야기가 방영 중인데, 출연자가 제주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제주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 주는 점이 참 좋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동행**」**‘열여덟 열혈남아, 달려라 기현아’**

- 이날 방송을 시청한 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날 출연자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멀쩡한 엄마와 아들인데 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도움을 받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사정이 저 가정과 다를 바 없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6월 16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KBS 시청자이다. 예전에는 여러 내레이터가 내레이션을 번갈아 했다. 언젠가부터 김진웅 아나운서 홀로 내레이션을 맡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질리는 면이 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9시 뉴스 진행자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좋다. 뉴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집중도가 다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뉴스 진행자들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 같다. <7월 9일 보고서>

○ 1TV 「2025 APEC 기획 아침마당」

- 김재원 아나운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난다. 그동안 진행을 너무 잘했는데 왜 떠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슬프다. <7월 30일 보고서>

○ 1TV 「추석 기획 아침마당」 '명불허전 -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라'

- 이날은 우리나라의 명절 한가위인데, 왜 외국인들을 출연시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연해서 명절을 즐기고 축하했으면 한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방송국도 혁신적으로 개편했으면 한다. 현재 여성 기상캐스터만 있는데, 남성 기상캐스터도 있어야 한다. 여성 기상캐스터만 있는 것은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11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잇슈머니'

-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여러 장의 A4용지를 들고 출연하는데, 용지의 끝을 계속 만지작거리 집중을 저해한다. 다음 장으로 넘기기 쉽도록 부채꼴로 펼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 또한 읽기 편하게 활자를 키운 탓인지 항상 열 페이지를 훌쩍 넘기는 것 같다. 매번 사용 후 버려질 종이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가슴이 답답하다. <11월 2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꽃피는 인생수업 -질문있습니다'

- 오늘 방송에 이지향 약사 출연자가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지 말아야 할 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약에 대한 설명보다는 의료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의료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의료인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기가 불편하다.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 '미스트롯3' 출연자인 미스김이 우승을 했다. 이미 타 방송에 출연해서 실력을 검증받았고, 그로 인해 행사도 다니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인데, 그야말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대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런 프로 가수가 출연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출연한 무명 가수들이 억울할 것 같다. <12월 18일 보고서>

○ 2TV 「세차JANG」

- 출연자 장민호 씨를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비행기 사고로 그동안 결방이 되었는데, 이날은 편성이 되어 좋았다. 장민호 씨가 출연하는 방송은 모두 시청한다. <1월 8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이날 이순실 대표가 만두 시식 행사에서 시식하는 사람들에게 시식 후 구매하지 않으면 총살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자주 반말하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 발언을 조심해 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이영지의 레인보우」

- 이영지 씨의 진행 실력과 게스트와의 친화력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이영지 씨의 진행을 보고 싶다. <1월 20일 보고서>

○ 2TV 「킵킵킵」

- 배우 지진희 씨를 좋아하는데 해당 드라마에 출연해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지진희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드라마가 더욱 재미있다. <2월 10일 보고서>

○ 2TV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스피드스케이팅'

- 모태범 해설위원과 김진웅 캐스터가 진행을 재미있게 잘해서 칭찬하고 싶다. 일하며 시청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일을 못할 정도였다. 모태범 해설위원은 해설을 재미있게 하고, 김진웅 캐스터는 목소리가 귀에 딱 와서 듣는 느낌이다. <2월 13일 보고서>

○ 2TV 「아이 러브 스포츠」

- 평일 저녁에 해당 프로그램을 챙겨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진행자가 영상보다 말을 늦게 할 때가 있고, 말을 더듬을 때도 여러 번 있다. 또 장난 식으로 진행할 때도 많아서 집중이 저해된다. <2월 14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싱글맘 송선미 씨가 딸과 함께 사는 모습을 시청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따뜻한 내용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데, 송선미 씨처럼 혼자서도 열심히 육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송선미 씨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트로트 신동이 나타났다!'

- 트로트 가수 황민우-황민호 형제가 출연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출연자인 듯 느껴져 채널을 돌렸다. 부모들이 육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어린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이 맞나 싶은 의문이 든다. <4월 4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본인은 엄지인 아나운서의 팬이었는데, 엄 아나운서가 해당 방송에 출연한 후부터 좋아하던 마음이 없어 지려고 한다. 엄지인 아나운서가 후배 남자 아나운서를 막 대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다. <4월 8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해당 프로그램은 다정다감한 분위기로, 같이 살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방송이었다. 그런데 새로 합류한 홍진희 씨의 외모가 너무 튀다.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도 강한데, 자기주장도 너무 강해서 예전 방송의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4월 23일 보고서>

○ 2TV 「2025 프로야구」-롯데:두산-잠실-

- 가수 이찬원 씨가 특별 캐스트로 참여했는데, 시청에 불편함을 느꼈다. 올스타전도 아닌 1군 프로야구 정규 경기에 트로트 가수가 캐스터를 맡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문성도 없었고, 오디오 겹침도 심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스포츠 캐스터와 선수 출신이 아닌 연예인의 해설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

- 진행자는 출연자가 돋보이게 해야 하는데, 박보검 씨는 해당 방송에서 서브 역할보다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목이 박보검 씨에게로 집중된다. 진행자로서 조금 더 출연자를 돋보이게 해주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해당 방송을 즐겨 보는 고등학생이다. 이 방송은 보스와 직원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패널들이 직접 비판하는 방식에 차별성이 있다. 그런데 보스들의 자아 성찰이라는 취지와 달리, 보스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패널들도 비판의 날이 무디다. 이런 부분이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보스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패널들이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5월 22일 보고서>

○ 2TV 「스모킹 건」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 이날 방송에서 목사인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과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패널이 “목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요?”라고 발언했다. 본인이 목사로서 굉장히 듣기 불편한 발언이었다. 모든 목사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목사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월 29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이날 성동구청장이 출연했다. 성동구청장은 당적을 가진 사람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당적을 가진 사람을 출연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굳이 출연시킨다면 국민의힘 쪽도 출연시켜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영방송이 벌써 공정성을 잃은 것 같아 우려된다. <6월 10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진행자 효정 씨의 반말이 듣기 불편하다. 다른 출연자들의 나이가 더 많은데 왜 혼자만 반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또한 시청자들도 듣고 있다. 설령 혼잣말이라고 해도 반말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2TV 「최수종의 여행사담 2」

- 최수종 씨를 좋아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사람을 대할 때 다정다감한 모습과 거만하지 않은 태도, 인정 넘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 <6월 30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요즘 들어 시청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출연자들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활동이 저조한 출연자들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지루하다. 기라성 같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같은 출연자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출연료도 고려해야겠지만, 방송의 재미를 위해 매주 다양한 연예인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7월 23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박서진 씨의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시청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방송이 박서진 씨의 가족에 치중되어 있다. 개인 방송국도 아니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한 가족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 같다. <7월 29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엄지인 아나운서가 모교에 가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강의하는 것을 시청했다. 그런데 과거의 강압적인 선배 문화를 알려주는 건 지나친 것 같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상한 '꼰대'문화로 받아들일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갑질과 강압적인 문화는 없어져야 하는 시대이다. <8월 13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출연자 김종국 씨가 본인보다 어린 출연자에게 "인마" 등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시청자들은 즐겁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그런 표현은 듣기 불편하다. 자제해 주기 바란다. <12월 8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조세호 씨의 출연 여부가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영방송에 논란이 있는 출연자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세호 씨의 하차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12월 9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극과 극! 66 동갑내기 이경실&이금희'

- 얼마 전 계란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경실 씨가 출연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판매할 거라면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지, 똑같은 계란을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이경실 씨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영리 활동을 했다는 점도 말이 안 된다. 논란을 일으킨 인물은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12월 15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진행자 배종찬 씨를 칭찬하고 싶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깔끔하며 힘이 있다. 그 어떤 아나운서보다도 진행을 잘하는 것 같다. 배종찬 씨를 섭외한 제작진에게도 고맙다.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준다. 감사하다. <1월 13일 보고서>

○ 1R 「뉴스레터K」

-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종철 진행자가 진행을 잘하고 목소리가 참 좋다. 마치 누룽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진행자이다. 본인이 방송에 사연을 보냈고, 진행자가 그 내용을 읽어주어 좋았다. <1월 15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

- 패널로 출연한 조현정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편파적이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방송에서 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 기반으로만 발언해야 한다. <2월 25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이날 출연한 이한 작가가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나라가 망조가 들게 되면 화재도 많아집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나라가 망조가 들면 화재가 많아진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시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다. <3월 28일 보고서>

○ 1R 「지금 이 사람」'천수이 변호사'

- 이날 천수이 변호사 편을 청취했다. 본인은 예전부터 사람으로 인해 돈을 잃은 적이 많다. 이날 천수이 변호사가 쓴 책이 소개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5월 14일 보고서>

○ 1R 「경제쇼」'경제 핫이슈'

-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지속적으로 '저희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진행자가 우리나라라고 고쳐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저희나라라고 표현해서, 듣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괴로웠다. <8월 29일 보고서>

○ 1R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 외신캐스터가 전달해 주는 내용은 좋지만, 어투가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말할 때 힘이 들어간다. 말을 할 때 긴장을 풀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말했으면 한다.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을 것 같다. <9월 24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여의도 인포메이션'

- 본인은 언론을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존재라고 알고 있다. 언론은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날 방송에 시사저널 기자가 패널로 출연했다. 시사저널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이다. KBS는 독립적인 기자를 섭외해야 한다. <10월 13일 보고서>

○ 1R 「뉴스레터K」

-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청년의 과로사 의혹을 전하던 과정에서 진행자가 취재 기자에게 런던베이글에 가봤냐, 빵이 맛있냐는 질문을 했다.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보여주었다. <10월 31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한낮의 과학실'

- 이날 이충환 동아에스앤씨 편집위원이 나와서 태중 태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이 됐다. 본인의 머느리가 시험관 아기를 계속 실패하다가 이번에 겨우 성공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이날 이충환 위원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었다. <12월 11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백 뮤직」**
 - 진행자 임백천 씨의 입담이 좋다. 금요일에 반말로 진행하는 코너가 있는데 재미있어서 좋아한다. 선곡도 다 좋다. <3월 24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현미 씨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다. 노동자를 비롯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목소리다. 청취자들에게 활력을 주기 때문에 주변에 추천하고 있다. <4월 15일 보고서>
- **2R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분위기가 조용조용해서 좋아하는 방송이다. 유지원 아나운서가 조용한 진행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해준다. 그런 부분이 청취하기에 좋다. <9월 11일 보고서>
- **2R 「이본의 라라랜드」**
 - KBS 라디오를 매일 청취한다. 해당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진행자 이본 씨가 사연을 읽을 때 혹은 사연자 번호를 언급할 때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잦다. 또한 정적이 자주 흘러 방송이 멈춘 줄 알았던 경우도 있다. 사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읽어주었으면 한다. <11월 11일 보고서>
- **3R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 김태규 아나운서가 발음도 좋고, 진행을 참 잘한다. 해당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만나고 싶다. 굉장히 호감이 간다. <12월 24일 보고서>
- **1FM 「가정음악」**
 - 본인은 십 년 넘게 KBS 1FM을 청취했다. 그런데 아나운서에게 음악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은 KBS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청취자들을 배려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나운서가 백과사전은 아니다. 음악 방송에 대한 진행이 이전 진행자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일도 빠져가며 클래식 채널에 빠져들었는데, 이제 듣지 않게 된다. 진행자를 조금 더 신중히 섭외해 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이날 퍼커셔니스트 이원석 씨가 출연했는데, 이런 공연을 들으니 머리가 맑아지며 산뜻한 느낌이 들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별한 패널을 초대해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7월 23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초반에는 이재후 아나운서가 다소 냉정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정하게 진행을 잘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연주자들의 이름, 곡 이름 등 발음을 또박또박 잘하는 점도 좋다. 진행을 너무 잘한다. <11월 19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윤수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너무 잘한다. 곡 해석과 곡을 선정하는 능력이 좋다. 몇 년 동안 해당 방송을 듣고 있는데 팬이 되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오래도록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12월 18일 보고서>

○ 2FM 「이은지의 가요광장」

- 해당 프로그램을 매일 청취하고 있다. 이은형 씨가 스페셜 DJ로 진행을 맡았던 방송도 잘 들었다. 굉장히 유쾌하게 청취해서, 이은형 씨의 고정 코너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은형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하고 많이 웃고 행복했다. 꼭 부탁한다. <3월 5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진행자 이현우 씨는 항상 코가 막힌 것 같은 목소리다. 청취자로서 듣기 불편하다. 그뿐 아니라 마약에 병역기피 문제까지 있었던 인물인데, 보수적인 KBS에서 왜 계속 그를 라디오 진행자로 섭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월 3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진행자 이금희 씨를 좋아한다. 최신곡 위주로 들려주는 점이 좋고, 이금희 씨가 워낙 긍정적인 분이라 즐겨 듣고 있다. <8월 8일 보고서>

○ 2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 진행자 효정 씨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항상 해맑고 긍정적인 진행이 좋다. <10월 29일 보고서>

○ 2FM 「조정식의 FM대행진」

- 너무 재미있게 청취 중이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듣는다. 진행자 조정식 씨가 진행을 너무 잘한다. <11월 28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일요 초대석'

- 이날 가수 장미화 씨가 출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다. 선곡도 좋았다. 다만 '웃으면서 말해요'라는 곡은 부르지 않아 아쉬웠다. 다음에 또 출연해서 이 곡을 불러주면 좋겠다. <7월 16일 보고서>

| 5. 공정성 |

○ 1TV 「시사기획 창」'대통령과 우두머리'

- KBS는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정도가 심해서 시청 내내 화가 났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서만 방송이 되어 편파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긴급진단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 홍익표 전 국회의원의 발언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것은 듣기 불편하고 분별력이 없어 보인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공정성을 가지고 방송하길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계엄의 기원 - 1부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 부정선거를 다룬 이날 방송을 시청했고, 실망했다.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 입장만 다뤘다.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뤄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이었다. <2월 24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파면vs기각 현재의 선택은?'
 - 비상계엄 선포 후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대통령 입장에서만 발언을 하며, 너무 편파적이다. <3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주말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다. 탄핵 반대 집회 쪽 인원이 더 많았는데, 탄핵 찬성 쪽 집회를 더 길게 보여줬다. 편파적인 보도에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양평랜드, 김건희 일가의 수상한 땅 투자'
 -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너무 편파적인 것 같다. 김건희 일가의 땅 투자 의혹을 다뤘는데 정확한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는데, 그 시위에 대한 보도는 없다. <9월 15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출연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민생을 잘 살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금감원이 보험사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다. 또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게 느껴진다. <12월 8일 보고서>
- 2TV 「2025 프로야구 개막전」'-롯데 : LG -잠실-'
 -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KBO 개막전과 관련해 중계의 공정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LG를 옹호하거나 롯데 선수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LG 트윈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롯데 팬으로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 <3월 25일 보고서>
- 2TV 「2025 프로야구」'롯데 : 한화 - 대전 -'
 - 박용택.차우찬 해설위원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설한다.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하는 스포츠 중계에서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치 개인 방송 같다. 한화 편에서 중계하고 있는데, 롯데팬 입장에서 너무 듣기 불편하다. <8월 14일 보고서>
- 2TV 「2025 프로야구」'한국시리즈 1차전 한화 : LG -잠실-'
 - 두 해설위원이 모두 LG 출신으로 편파 중계가 심하다. 특히 박용택 해설위원의 편파적인 해설은 듣기 불편할 정도다. 수신료를 내면서 시청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다. LG 경기가 있을 때는 이분들이 해설하지 않았으면 한다. <10월 28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시사본부」
 - 해당 방송을 청취하다 보면 세 명의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는 생각

이 든다. 좌우 양측 패널이 출연해 균형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하다못해 진행자라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진행자와 패널 모두가 같은 생각이다. 진행자와 패널 모두 대통령을 탄핵 쪽으로 몰고 간다. <1월 7일 보고서>

○ 1R 「전격시사」

- 고성국 진행자에서 정창준 진행자로 교체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정창준 진행자는 이전 진행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

- 매일 청취하는 방송이다. 그런데 제작진의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민주당도 잘못이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 자주 출연하는 시사평론가도 민주당 입장에서 발언하며, 발언에 개인적인 의견을 담는다. 공영방송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월 19일 보고서>

○ 1R 「뉴스레터K」

- 해당 프로그램을 매일 청취하고 있는데, 진행자가 공정하지 않다. 패널들이 토론할 때 특정 정당 패널에 동조하거나 편을 들어줄 때가 있다. 시정해 주기 바란다. <12월 11일 보고서>

6. 사실성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이날 방송에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 '동주공제'가 표기됐다. 그런데 舟(배주)가 아닌 周(두루 주)로 잘못 표기됐다. 공영방송 KBS에서 창피한 일이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계절기록」

- 이날 '곡우(穀雨)와 입하(立下) 사이'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그런데 여름의 시작을 말하는 그 입하라면 여름 하(夏)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한자가 사용되어 의아했다. 공영방송에서 잘못된 한자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의견을 낸다. <4월 23일 보고서>

○ 1TV 「역사스페셜 시간여행자」 '한산, 이순신의 바다'

- 임진왜란이 발생한 해가 1592년인데, 자막에 1952년이라고 표기됐다. 그 자막을 제외하면, 이날 방송 내용은 최고였다. <12월 23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 몸에 쌓인 독 통풍'

- 이날 자료화면에 통풍이 한자로 표기됐다. 그런데 아플 통(痛) 자를 써야 하는데, 통할 통(通) 자를 썼다. 국민의 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실망스럽다. <12월 23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해당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KBS 공채 27기 개그맨 신윤승 씨의 이름이 최윤승으로 잘못 표기됐다. 작년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했던 개그맨이다. 성의 문제로 보인다. <4월 14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엄지인 아나운서가 안중근 의사 친필족자를 보는 장면이 방송됐다. 그런데 자막에 '1930년 경술 3월 휘순 감옥에서'라고 표기됐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에 순국했다. 제작진에게 전달 바란다. <5월 7일 보고서>

○ 2TV 「셀럽병사의 비밀」

- 이날 방송에서 '백야 김좌진' 장군을 '백치 김좌진'으로 표기한 자막이 나왔다. 속히 수정해 주기 바란다. <5월 15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날 방송 시청했다. 강화도는 인천광역시에 속해있는데, 자막에는 '경기 강화'로 표기되어 있다. 수정해 주기 바란다. <6월 10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할매 밥 됩니까? - 영숙 할매의 손칼국수와 나물전'

- 할머니께서 대동아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막에는 한국전쟁으로 표기됐다. 대동아전쟁과 한국전쟁은 다르다. 자막이 잘못됐다. <10월 28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어제 방송 말미 자막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팬미팅 일자가 '슈돌 12주년 기념! 12월 02일'로 나왔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2025년 12월 12일'로 공지가 되어 있다.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방송 자막에서 잘못된 정보로 나와 혼란스럽다.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수정해 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7. 프로그램 호평 |

○ 1TV 「2025 KBS 다큐 인사이트 신년기획 빅퀘스트 3부작」

-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방송했는데, 본인이 관심이 많다. 본인의 자녀가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자녀에게도 다시 보기로 시청하라고 추천할 만큼 내용이 좋았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명불허전'

- 이날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우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치과의사가 출연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치과에 가서 진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또한 본인 동네는 봉어빵이 세 개 2,000원인데, 봉어빵 세 개에 1,000원에 판매하는 청년의 사연도 잘 봤다. <1월 7일 보고서>

- **1TV 「우리 집 금송아지」**
 - 방송 잘 보고 있다. 출연자들이 야외를 돌며 방송을 만드는 점이 흥미롭다. 본인 집에 아주 오래된 등산화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싶다. <1월 10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계엄의 민낯’**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몰랐던 내용까지 자세히 다뤄주어 유익하게 시청했다. 평소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온 국민들이 시청해야 할 방송이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 너무 잘 봤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80대 시청자로 해당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가요무대」를 시청하며 위로를 받고는 한다.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살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설 특집 전국 다둥이 가족자랑」**
 - 다둥이 가족, 특히 아이들이 출연해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엄지인 아나운서와 장민호 씨의 진행도 좋았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감동적으로 잘 시청했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지방줄기세포로 관절염 진행 늦춘다”**
 - 지방줄기세포로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본인이 양쪽 관절이 안 좋아서 뉴스에 나온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였고,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 <2월 3일 보고서>
- **1TV 「설 특집다큐 노망? 로망!」**
 - 이날 방송을 시청하며 느낀 것이 많았다. 본인도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에 출연한 분과도 소통하고 싶다. 방송 잘 시청했고, 제목도 잘 지은 것 같다. <2월 3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화산, 인간 - 3부’**
 - 우리나라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방송사가 거의 없다. KBS가 역시 다큐멘터리를 잘 제작하고, 특히 화산과 같은 자연을 다뤄주어 관심 있게 시청했다. 좋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칭찬하고 싶다. <2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둘째 낳아 또 1억 원”..저출생 극복 ‘마중물’ 되나’**
 -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기사다. 유익하게 시청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서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보도 잘 시청했다. <2월 7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별별다방」[광주충국]**
 - 이날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소감을 남기게 됐다. 흡입력 있게 잘 만들었다. 방송 정보도 유익했다. 덕분에 깔깔거리며 웃었다. 웃을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행복해져라 우리 가족’

- 방송 잘 시청했다. 본인도 자식을 세 명이나 키우지만, 이번 방송에 출연한 가정의 아이들처럼 착한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아이가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읽는 장면에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슬기로운 두 반장’

- ‘슬기로운 두 반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다뤘다. 본인은 겁이 많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지만, 본인의 친구들 중에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경우가 많다.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이런 내용을 다뤄주는 것 같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상세히 다뤄주어 고맙다. 칭찬하고 싶다. <2월 19일 보고서>

○ 1TV 「KBS 이수인 동요축제 등글게 등글게」

-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KBS에서 매년 이런 동요축제를 개최해 주었으면 한다. <2월 2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영양제 한 달분이 비싸야 5천 원?...약사들 ‘반발’ [잇슈 키워드]’

-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시청하는 방송이다. 이날 영양제를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보도를 봤다. 본인은 약국에서 몇 만 원을 주고 사던 영양제여서 보도 내용이 도움이 됐다. 친구들에게도 해당 보도를 알려주었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식당에서 12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본인은 KBS 뉴스의 정확하고 신속한 점을 인정하는 시청자이다. 항상 감사하며, 매일 챙겨 보려고 노력한다. <3월 5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결혼하자 맹꽂아!」

- 어머니 대표로 전화했다. 임순이(반효정 분)가 사망할 때 스카프 날리는 장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본인은 60대이고, 7-80대 어머니들도 해당 장면에서 너무 공감이 되어 많이 울었다고들 한다. 덕분에 울고 웃으며 행복해졌다. <3월 13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밭길 따라 고향 기행’

- 해당 코너에서 경남 통영을 보여주었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했다. 방송에서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하면, 외국에서 여행도 많이 올 것 같다. 한국을 알려주어 감사하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우리가 미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물건들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자주 시청하고 있다. 본인의 집에 고서가 여러 권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감정을 통해 진가를 알아보고 싶다. <3월 24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꽃피는 인생수업’

- 이날 방송에서 대장암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꼭 필요한 정보였다.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마취가 힘들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방송에서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대장암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해당 프로그램은 한 주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보도해 주는 점이 좋다.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도, 이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등을 알게 된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특선 다큐 두봉주교 선종 추모」'기쁘고 뒤흔하게'

- 해당 방송을 보고 KBS가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방송사라고 생각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여서 마음에 와닿는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25주년 특집 삶의 극장으로의 초대」

- 본인의 가족과 친척들 모두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식구들 모두가 다 울었다. 삭막한 시대에 이렇게 인간 냄새가 나는 방송을 보여줘야 한다. 너무 감명 깊어서 평평 울며 시청했다. <5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부처님 오신 날 기획으로 스님들이 출연했는데, 방송이 다채로웠다. 다른 나라는 종교로 인해 전쟁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방송 참 좋은 것 같다. 특히 수안 스님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앙코르를 요청하고 싶었다. <5월 8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효도 기획 박대리'

-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수 박군이 효도 기획 코너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코너를 꾸준히 해줬으면 한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울감도 덜어질 것 같다. 너무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5월 12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그렇게 20년이 지났다 은둔 중년'

- 중년들이 은둔 생활하는 모습이 방송됐는데, 본인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 공감하며 시청했다. 정신적인 아픔이 무서운 병인데 잘 만든 방송인 것 같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월 19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공실시대 - 상가의 몰락'

-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 중인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현재 상황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본인은 KBS의 다큐 프로그램을 좋아하며, 시청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곤 한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다. <5월 2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K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현충원에서 참배한 것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고 칭찬하고 싶었다. 시청자로서 감사하다. <6월 5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거창군민과 함께하는'

- 무척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일요일마다 꼭 함께 시청했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본인은 여전히 일요일마다 챙겨보고 있다. 나오는 가수들과 노래들이 다 마음에 든다. <6월 10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모발을 부탁해 탈모와 두피 관리법’**
 - 녹차와 오일을 이용한 두피 관리 방법이 소개되었다. 본인이 탈모로 인해 미칠 지경인데 이 방법이 너무 좋아 보였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KBS에서 이런 방송을 해주어 고맙다.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이 방송은 꼭 시청한다. <6월 19일 보고서>
- **1TV 「6.25 특집 다큐 한국전쟁 이동외상센터」**
 -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나,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뼈아픈 상처를 간접 경험했다. 군의 활약상을 알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KBS가 다큐멘터리를 정말 잘 만든다. 몰랐던 내용을 알게 해주어 감사하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평생 용접했는데 AI?”..기로에 선 제조 대한민국’**
 - 우리나라 제조업이 힘들다는 보도를 보고 안타까웠다. 이런 시국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보도 감사하고, KBS 뉴스는 아주 잘하고 있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
 -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다. 이날 방송에서 북한 사진전이 소개됐는데, 이북 생활에 대한 사진이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북한은 가볼 수 없는 곳이고,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이라 해당 방송을 항상 시청하고 있다. <7월 14일 보고서>
- **1TV 「수해 극복, 현장을 가다 6시 내고향」**
 - 해당 방송을 시청했는데, 국민을 위해 힘든 곳에서 땀 흘려 주어 감사하다. 이런 방송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어려울 때 달려가는 방송이 진짜 방송이다. 시청자와 나라를 위해 힘써주어 감사하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스카우트 6 엘리어잡터」**
 - 중1, 중3 학생이 있는 학부모이다. 해당 방송을 통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됐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해당 방송에 정말 감사드린다. 이처럼 있는 사람을 위한 방송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많이 편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뿌듯한 프로그램이다. 최고다. <8월 5일 보고서>
- **1TV 「수해극복 기획 동행」**
 - 해당 방송 시청 후 마음이 좋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 비 피해를 입은 가정이 소개되었는데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내용이 보기 좋았다. <8월 12일 보고서>
- **1TV 「광복 80주년 기획 시사기획 창」‘잊혀진 매국의 성 - 조선귀족 유산 추적기’**
 - 평소 KBS를 자주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방송을 시청했는데 내용이 진솔했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느낌이었다. 방송을 보며 많은 공감을 했다. <8월 21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해당 방송을 시청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 현재 세계의 사정을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긴다. 편중되지 않는 뉴스를 보여주고, 세계의 소식을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된다. 감사하다. <9월 2일 보고서>

○ 1TV 「**방과 후 초능력**」

- 매일 해당 프로그램만 기다린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하다.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엄마는 멋쟁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룬다. <9월 5일 보고서>

○ 1TV 「**KBS 중계식**」**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36주년 정기연주회**」

- 항상 들을 때마다 타이틀 음악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든다. 클래식 음악을 현대 뮤지션들이 연주하는 점, 그리고 선곡 및 뮤지션 선정이 좋아서 잘 보고 있다. <9월 8일 보고서>

○ 1TV 「**1만회 기획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

- 이날 방송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요즘 자극적인 방송이 많은데, 이날 소개된 사연들은 시청자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앞으로도 제작진이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사연들을 많이 받아서 이날처럼 감동적인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10월 2일 보고서>

○ 1TV 「**추석 특집 다큐 K-가곡 슈퍼스타 비긴즈**」

- 가족들과 추석을 보내며 시청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오랜만에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감동이 이어졌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KBS 덕분에 추석에 큰 선물을 받았다. 감사하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망막에 초소형 칩 이식해 시력 회복...’실명 치료 새 가능성**”

- 본인이 시력이 좋았는데, 황반변성을 앓고 실명 위기에 처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보도를 관심 있게 시청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경우 잘 보도해 주기 바란다. <10월 23일 보고서>

○ 1TV 「**다큐 온**」**‘알면 알수록 한글’**

- 본인의 어머니가 해당 방송을 시청하신 후, 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칭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이 나이가 되어 또다시 새롭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본인도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할 계획이다.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1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해안가 마약 벌써 5번째...유입 경로 ‘오리무중’**”

- 뉴스에서 마약에 대해 보도했는데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약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마음 아프다. 국가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마약 사건, 사고를 충실히 보도해 주기 바란다. <11월 7일 보고서>

○ 1TV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위대한 여정**」

- 감명 깊게 시청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공자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11월 19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속세 논의 본격화’
 - 그동안은 의사들이 출연해서 건강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뤘다. 들어보면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상식 수준에서 다루는 것 같다. 그런데 이날은 상속세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루어서 도움이 됐다. 이날처럼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주기 바란다. <11월 19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고말선의 사랑’
 - KBS를 너무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해당 프로그램이 참 좋다. 이날 주인공들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굴 농장을 하는데 굴도 구입해서 먹어보고 싶다. <11월 21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 편의 재방송을 시청했다. 개인이 소장한 축음기 등을 소개해 주었는데 진귀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음식 등을 소개해 주니 방송이 빛나 보인다. 정말 특별한 내용이었다. <11월 21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엄마니까 할 수 있어’
 - 서민들의 애환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항상 방송을 보게 되는데 이번 주 방송에 남편이 소방대 원이고 아이 셋 키우는 주부가 희귀병에 걸려 시력을 잃어가는 걸 보니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방송의 힘 같다. <11월 26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마지막 선택,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 이날 방송에서 한 요양병원을 소개했는데, 환자들의 팔과 다리를 전혀 묶지 않는 부분이 너무 좋았다. 본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은 팔과 다리를 묶는다. 본인뿐 아니라 친구들도 방송을 시청한 후 해당 요양병원을 칭찬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내용도 참 좋았다. <12월 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힘내라! 전통시장’
 - ‘힘내라! 전통시장’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꼭 필요한 코너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부산의 전통시장에 촬영을 왔을 때 반응이 참 좋았다. 파급력 있는 공영방송에서 전통시장을 찾아와 인터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상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다. <12월 4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형제의 산골 캠핑장’
 - 젊은 청년들이 귀농해서, 시골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귀농을 알아보려고 한다. <12월 11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희망 2026 나눔캠페인」
 - 본인도 초록우산과 월드비전의 후원자로서 해당 방송을 잘 시청하고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협조했으면 좋겠다. <12월 15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시린 마음도 녹아요!” 내 영혼의 김치찌개’
 - KBS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너무 잘 제작해 주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날 김치찌개를 다뤘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

을 선사해 주기 바란다. <12월 22일 보고서>

○ 1TV 「송년 기획 열린음악회」

- 8~9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공부할 때 들었던 노래들이 해당 방송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한다. 그때 들었던 노래들은 지금 들어도 너무나 좋다. 특히 이날은 송년 기획으로 김희재 씨, 박서진 씨 등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재미있었다. <12월 30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 재미있어서 꾸준히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 간의 관계가 좋아서 잘 시청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고, 드라마보다는 리얼한 이야기라 잘 보고 있다. <1월 6일 보고서>

○ 2TV KBS 특별기획 주말드라마「다리미 패밀리」

- 전개가 재미있어서 늘 시청하고 있다. 본인이 박지영 배우를 좋아하는데 극중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서 시청 내내 속상하다. 고봉희(박지영 분)와 이다림(김새록 분)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1월 14일 보고서>

○ 2TV 「셀럽병사의 비밀」

- 고종 사망 미스터리를 다뤘는데 몰입해서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옛날에는 병명을 모른 채 사망했을 텐데, 방송을 시청하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역사적으로 연결도 되어 유익했다. 함께 시청하던 아들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했다. 앞으로 시청률도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1월 16일 보고서>

○ 2TV 「오래된 만남 추구」

- 요즘 가장 재미있게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재와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다. 짧게 방송하고 종영되는 점이 아쉽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누가 누가 잘하나」

-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요즘 아이들이 방송에서 어른들의 창법을 따라 하며 트로트를 부르곤 하는데, 그건 시청자가 보기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이 옛날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시청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2월 2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이날 족발 등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소개됐다. 본인은 해당 방송에서 소개한 곳을 다 가보고 있다. 지난번에는 웅심이를 먹으려고 강원도에 다녀왔다. 이날은 인천이 소개되어 가보려고 한다. <3월 26일 보고서>

○ 2TV 수목시트콤「빌런의 나라」

-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 본인이 배우 신신애 씨를 좋아하는데, 극 중에서 안타까운 역할이라 속상하다. 그렇지만 잘 보고 있다. <4월 3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어린이날 기획'

- 어린이날 특집 방송에 자녀 두 명과 함께 다녀왔다.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내년에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왓지떨 아이들의 환호성을 들으니,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하다. <5월 7일 보고서>

○ 2TV 「방판뮤직 어디든 가요」[첫 회]

- 연예인과 일반인이 어울리며 함께 흥을 돋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너무 좋은 방송이었고, 이런 방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6월 2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이날 박원숙 씨가 스위스 여행을 가는 내용이 방송됐다. 스위스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나라라고 하던데,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볼 수 있어 고마웠다. 그리고 박원숙 씨가 아들을 잃고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7월 2일 보고서>

○ 2TV 「크레이지 리치 코리아」

- 방송을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한국인들이 외국 곳곳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본인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도 된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7월 8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날 방송에서 제주도를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제주도를 많이 다녀왔지만, 새로운 면을 보여줘서 좋았다.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다. 출연자들이 퀴즈를 풀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재밌다. <7월 15일 보고서>

○ 2TV 「오래된 만남 추구」

- 잊었던 연애 세포가 살아나고, 나도 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다. 실질적인 연애 감정이 그대로 보여서 꾸며낸 연속극보다 재미있다. 나 같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너무 재미있고, 방송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8월 1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화려한 날들」[첫 회]

- 점점 대화가 단절되어가는 요즘 세상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에 대한 내용을 공감하며 시청했다.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주는 좋은 취지의 드라마인 것 같다. 주연배우 정일우 씨도 멋있다. <8월 12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교통카드면 충분해'

- 교통카드 하나로 여행 다니는 내용이 소개됐다. 본인도 친구들을 모아서 가보려고 준비 중이다. 이번에 경기도 지역을 소개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다. <9월 17일 보고서>

○ 2TV 「경제콘서트」“너무 비싼 빵값” 논란..제과업계 “원재료 공동구매 추진”

- 본인도 요즘 빵값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밀가루 등 주재료의 원가는 변동하지만, 빵값은 계속 올라만 간다. 이날 보도 내용이 좋았다. 이런 보도를 통해 물가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10월 1일 보고서>

- 2TV 「**광복80주년 KBS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 웅장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무대가 환상적이었고, 시청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마저 들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무대를 너무 잘했다. 자랑스럽다. <10월 10일 보고서>
- 2TV 「**말자쇼**」[1회]
 - 오랜만에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본인이 육아 중인데, 공감이 되고 위로도 많이 받았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오래 가길 바란다. <12월 15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이다혜의 북마크'
 - 이다혜 기자가 '따뜻한 위로의 책'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죽기 전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본인도 구매해서 읽어보려고 한다. 방송 잘 듣고 있다. <1월 22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
 -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듣고 있다. 이날 연금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됐다. 노후 자금 관련 내용 또한 좋았다. 본인은 KBS를 사랑하는 청취자이다. <3월 7일 보고서>
- 1R 「**소설극장**」'세 여자'
 -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듣게 된 방송인데 아주 흥미롭다. 옛날 중국 태항산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싸우는 내용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세 여성의 고생을 다루고 있다. 흥미가 있고 관심도 있어 잘 듣고 있다. <6월 17일 보고서>
- 1R 「**전격시사**」
 - 이날 방송을 청취했는데,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훌륭했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구구절절 옳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니 들으면서 공감이 됐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방송이니 앞으로도 공정하고 바르게 방송해 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KBS 1라디오를 고정해놓고 듣는 청취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뉴스를 들을 수 있어 좋다. 덕분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의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다. 뉴스에서는 굵직굵직한 사건만 다루는데, 해당 방송에서 세세한 소식까지 다뤄서 좋다. <8월 18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미래생활사전'
 - 본인이 경산에 거주하는데, 이곳은 요즘 비가 땅이 젖을 정도로만 내린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물과 비료가 적게 드는 옥수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 <8월 28일 보고서>
- 1R 「**KBS 라디오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
 -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차량 지원을 받아 단풍 구경을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는 내용을 접했다. 본인도 교통사고로 장애가 있어 신청해 보려고 한다. 내용이 유익했다. <10월 27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장수 職業'

- 본인이 65세인데, 이날 방송에서 젊게 보이는 머리 색상을 알려주어 도움이 됐다. 본인이 아직 현직에 있다 보니 젊게 보이고 싶은데, 이날 방송에서 염색 색상을 추천해 주어 유익했다. <12월 11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한다.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기 위해 콩 앱까지 설치했다. 은가은 씨가 오래 진행했으면 좋겠다. <1월 13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운전을 하며 재미있게 청취했다. 이날 선곡 중 '이런 노래도 있나' 싶을 만큼 좋은 노래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듣기 하려고 한다. <3월 21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백 뮤직」

- 해당 방송에 손 편지를 자주 보내는 애청자이다. 임백천 씨의 목소리가 편안하고, 청취자들의 사연이 공감된다. 틀어주는 노래들도 마음을 토닥여주어 일상에 위로를 받는다. <5월 13일 보고서>

○ 2R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 아침마다 손녀와 함께 청취하고 있다. 손녀의 생일을 맞아 해당 방송에 사연도 보냈다. <8월 13일 보고서>

○ 3R 「대한민국 인기가요」

- 오전 6시마다 재미있게 청취한다. 신샘이 음악평론가가 출연해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 주는데, 선곡이 참 좋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날까지 소개한 곡들이 모두 좋았다. <1월 9일 보고서>

○ 3R 「함께하는세상만들기」

- 본인이 시각장애가 있는데, 이날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가 개발됐다고 소개했다. 본인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지팡이여서 사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월 24일 보고서>

○ 3R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 KBS 3라디오에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참 좋은 교양 프로그램들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사연도 좋고 선곡도 좋다. 특히 선곡이 좋다. KBS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곡들이 있다. 가사가 너무 좋았다. <5월 26일 보고서>

○ 3R 「심준구의 세상보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즐겨 듣는다. 시각장애가 있는 심준구 씨의 진행도 좋고, 시각장애인 출연자들도 많이 출연해서 잘 듣고 있다. <7월 22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하루도 빠짐없이 듣는 프로그램이다. 나이를 먹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건강에 대한 것을 알아두려고 하는 편이다. 건강 상식을 알아두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있다. <9월 4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일하면서 온종일 1FM을 청취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FM을 듣기 시작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특히 재미있게 듣는다. 이날 오프닝 멘트에서 소개한 정보도 좋았다. <1월 3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세레나데 곡이 소개되었는데 선곡이 좋았다. 항상 잘 듣고 있다. <2월 5일 보고서>
- **1FM 「가정음악」**
 - 개국 때부터 클래식 FM을 청취한 청취자이다. 해당 프로그램도 매일 아침 꼭 청취한다. 특히 이날 선곡된 첫 곡이 너무 좋았다. 방송으로 듣고, 따로 또 감상하려고 한다. <5월 2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결혼하기 전부터 KBS 1FM을 청취했고, 결혼한 후에도 1FM을 통해 정만섭 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꾸준히 듣고 있다. 외출을 했다가도 집에 돌아와선 1FM을 꼭 청취한다. <5월 28일 보고서>
- **1FM 「JAZZ 수첩」**
 - 1FM만 듣는 청취자이다. 밤에 늦게 잠드는 편이라 해당 방송을 즐겨 듣는다. 잘 듣지 못하는 재즈 곡들을 선곡해서 들려주는 점이 참 좋다. 최근 들려준 하모니카 연주곡도 좋았다. <10월 16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이날 선곡된 곡들이 다 너무 좋았다. 진행자의 멘트도 편안하고 좋았다. 밤에 듣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10월 27일 보고서>
- **2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 엄청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오마이걸 효정을 참 좋아한다. 항상 잘 듣고 있다.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려고 한다. <1월 6일 보고서>
- **2FM 「상쾌한 아침」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 조정현 씨가 진행하는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코너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코너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방송 잘 듣고 있다. <1월 24일 보고서>
- **2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 보이는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튜디오 앞에서 구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인도 해당 방송을 좋아해서 아이를 데리고 보러 가려고 한다. <4월 9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매일 이 방송만 듣는 청취자이다. 진행자 이금희 씨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있어 잘 듣고 있다. 음악도 좋다. <8월 19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부산에 거주하는 청취자로, 새벽 3시부터 KBS 라디오를 청취한다. 해당 방송을 즐겨 듣고, 재방송도 챙겨

듣는다. 버스나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께 추천도 한다. 항상 듣고 있고, 앞으로도 잘 듣겠다. <월 일 보고서>

○ **한민족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상당히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주말 새벽에 잘 듣고 있다. 내용이 참 좋다. <1월 3일 보고서>

| 9. 표현(소재) |

○ **1TV 「6시 내고향」**

-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날 방송이 알차지 못하고 내용들이 허술했다. 예를 들어 '오만보기' 코너의 경우, 예전에는 시골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을 정감 있게 잘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날은 시간 때우기처럼 보일 정도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평생을 즐겨 시청해온 프로그램이다. 골동품을 조용히 음미하고 퀴즈도 차분히 풀고 싶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방청객이 등장해 환호성을 지르니 방송에 집중을 할 수 없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청객은 출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2월 4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 이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는데, 이 분은 굉장히 좌편향 된 인물이다. 방송에 출연해 진보가 옳다는 식의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편향적인 패널의 의견을 방송하는 것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진행자와 출연자들 앞에 매번 노란색 종이컵이 놓여있다. 타 방송사와의 비교는 미안하지만, 타 방송사에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다. 방송에서 환경을 살리자고 말하면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방송을 시청하는데, 내레이션이 너무 딱딱하게 진행되어 혼나는 기분이 들었다.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해도 될 텐데, "~했다."라고 너무 딱딱하게 말한다. 부드러운 말투로 바꿔주었으면 한다. <2월 27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80대 시청자이고, 해당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고 있다. 월말에 신청곡으로 무대를 꾸밀 때 시청자 사연이 함께 소개되는데, 사연에 공감이 되어 꼭 읽는다. 그러나 자막이 금방 사라져 안타깝다. 자막을 몇 초라도 길게 표기해 주면 좋겠다.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작진에게 꼭 전달되길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대전총국] '곰팡이가 피워낸 '시크릿 가든''**

- 곰팡이 소개를 하며 갑자기 더러운 화장실을 보여주는데 야간에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막

으로 사전에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개인 비위 상하는 화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지 말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

- 성금 모금 관련 자막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받아 적기 어렵다. 7·80대 시청자들이 잘 볼 수 있게 화면에 계속 표기해 주었으면 한다. <4월 1일 보고서>

○ 1TV 「더 보다」'또 파면된 대통령'

-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의 방송이 제작되지 않다가, 파면되자마자 이런 내용을 다루는 점이 보기 안 좋다. 중립을 지켰으면 한다. 국민들의 수신료로 제작되는 만큼, 국민들의 화합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 <4월 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이날부터 투표 방식이 바뀌었는데 불합리한 것 같다. 예선에 출전한 1~4번 중에서 우승자를 뽑아, 지난주 우승자와 결승에서 겨루는 형식이다. 본인은 우선 예선에서 한 명을 선택했고, 결승에서 지난주 우승자 5번을 선택하려고 보니 1회밖에 되지 않아 투표할 수 없었다. 중간에 수정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결승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파프리카 식단 도전자'

- 이날 파프리카 라페 사각 김밥 싸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카메라가 김밥 싸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담지 않아, 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앞으로는 요리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담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우리 집 금송아지」

- 원래 방송의 취지는 집안이 소장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1억이 넘는 불상이 소개되어, '저런 보물을 소장한 집안도 있구나' 생각하며 신기해했다. 그러나 요즘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프로그램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4월 2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본인에게도 여론조사 전화가 왔다. 어느 당을 지지하냐고 물어서 나름대로 대답을 했더니, 여론조사 자격이 안 된다며 끊어버렸다. 이후 방송에서 보여주는 여론조사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달려라 고향버스'

- 광주에 사는 시청자다. 이날 안내양 김정연 씨가 양봉 농가의 일을 돕던 중 벌에 쓰이는 장면이 방송됐다. 제작진이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김정연 씨는 고향을 돌아다니며 취재해야 하는데, 다치면 취재가 힘들 것 같다. <5월 8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의료붕괴 카운트다운'

- 해당 방송을 시청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공석이고 나라가 엉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개혁의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고, 의료 붕괴 문제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5월 15일 보고서>

○ 1TV 「세계는 지금 스페셜」

- 외국인이나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현재 투표율' 자막이 해당 방송의 자막을 다 가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위치를 조절하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두 자막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방송을 이해하라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6월 4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해외 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임에도, 한국의 시각으로 해외 상황을 다룬다. 예를 들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치매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좋지 않은 점만 다루지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지지 않는 점이 다소 편협하다. <6월 12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

- 우리나라 정통 국악을 보고 싶은데, 자꾸 정통에서 벗어난 국악을 보여준다. 출연을 희망하는 정통 국악인들이 많을 텐데, 외국인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외국 악기를 다루기도 한다. 국악이 퇴색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렵게 의견을 내니, 반영해 주기 바란다. <6월 23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

- 이날 방송에서 아이세 씨가 옥산서원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미디어 오프라인'이라는 문구가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 10개 국어로 약 7초 동안 방송됐다. 제작진이 편집 과정에서 실수하고도, 방송 시작 직전까지 이를 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육시투어'

- 해당 코너의 제목을 보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육시'라는 단어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서 목을 벤다는 뜻이 있기도 하고, '육시탈'이라는 욕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은 거의 고령층인데, 고령층 시청자들은 대부분 '육시'의 뜻을 알고 있으니 코너명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8월 8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부동산 폭등 쓰나미 재발 서울 아파트값 포비아'

-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집값이 일부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이 주제가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 부동산 불패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투기를 부추기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8월 26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춘천충국]

-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너무 무섭다. 옛 지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등, 내용은 좋다. 다만 예쁘고 좋은 단어도 많은데, 왜 굳이 '지명수배'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각박하게 느껴지고 듣기 안 좋다. <9월 1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들 이날 방송을 시청하다가 채널을 돌렸다고 한다. 출연자들이 꼭 품격있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은 지나치게 요란했다. 분위기가 너무 산

만하고 정신이 없어서 시청하기 힘들었다. <9월 25일 보고서>

○ 1TV 「2025 라이콘의 탄생」

- 방송에서 소개한 업체는 연락처를 공개했으면 한다. 방송에서 좋은 제품을 소개해놓고, 업체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으니 실망스럽다. <10월 14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

- 제목처럼 동네의 역사나 문화를 소개하기보다는, 진행자 이만기 씨가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에 더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마치 가게를 홍보하기 위함으로 느껴진다.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10월 20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추자도 삼총사'

- 성하진 어린이가 우유를 선생님께 던지는 장면이 방송됐다. 본인은 이 장면을 시청한 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교권이 떨어졌는데, 이런 장면이 방송된다면 아이들이 선생님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태도를 나무라지 않은 선생님도 잘못이다. 이런 장면은 편집을 했어야 한다. <10월 21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 내레이션이 반말로 진행되어 듣기 불편하고 스트레스받는다. 특히 「인간극장」같은 경우는 고령층 시청자가 많다. 얼마든지 내레이션이 존댓말로 진행될 수 있는데, 왜 반말로 진행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반말을 듣는 순간 채널을 돌리게 된다. <10월 24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가족과 함께 세계속으로'

-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시청자들은 여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일반인 가족이 출연해서 마치 「인간극장」을 시청하는 것 같았다. 시청자들은 일반인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기분을 지키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이날 방송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 <11월 17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이날 전라도 광주 지역이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있는데, 화면에는 광주라고만 표기됐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선 자막을 봤을 때는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 알 수 없다. 전라도 광주라고 표기해야 시청자가 알아보기 편할 것 같다. <11월 21일 보고서>

○ 1TV 「2025 인천마라톤」

- 촬영 기자가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선수들을 촬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선수한테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위험해 보인다. 또한 선수들이 뛰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그 부분 주의해 주기 바란다. <11월 25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

- 너무 틀에 박힌 모습만 보여준다. 즉 지나치게 포식자가 승리하는 모습 위주로 보여준다. 실제 자연에서는 사자 같은 육식동물의 사냥 성공률이 20% 정도이며, 초식동물들이 반격을 해서 육식동물이 다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진정한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한다. <12월 10일 보고

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고구마와 감자'

- 이날 고구마를 쪄서 신문지에 싸서 전자레인지에 굽는 방법을 소개했다. 본인이 제지회사에 다녀서 잘 알고 있는데, 신문지는 재활 용지라서 굉장히 더럽다. 또한 잉크는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신문지에 심지어 물을 뿌려 고구마를 감싸 전자레인지에 구우면, 잉크가 고구마에 스며들 수도 있다. 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12월 19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끝까지 간다'

- 납축전지 제품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데,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은 정부 지원도 안 되고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이 나왔다. 장애인들은 전동 보조기 외에도 여러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힘들다고만 하면 안 된다. 본인 돈을 보태 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2월 22일 보고서>

○ 1TV 「성탄 기획 아침마당」'2교시: 건강하세요 산타클로스'

- 허양임 교수가 하루 식단을 추천해 주었는데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연봉 높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서민들이 먹기 힘든 재료들로 추천을 해주어 보기 불편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추천해 주면 좋겠다. <12월 26일 보고서>

○ 2TV 「스모킹 건」

-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모방범죄가 우려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의 방법이 소개되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알게 된다. 방송을 보면 섬뜩한 순간이 너무도 많다. 방송을 제작할 때 범죄의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아는 노래 feat.형'

- 웃음으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개그 콘서트」인데,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그린 '아는 노래 feat.형'이라는 코너는 보기 불편했다. 주말 저녁 잠시 웃는 시간에 다시 힘든 현실을 상기하게 됐다. 힘겨운 자영업자들이 이 코너를 보고 과연 위로를 얻을지 의문이다. 정말 힘겨운 사람도 이 시간만큼은 웃으며 일상을 잊게 해주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였으면 한다. <1월 8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전현무 씨와 홍주연 아나운서의 러브라인이 보기 불편하다. 무려 20살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웃음의 소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현실에 사는 여성들이 받게 된다. 방송을 본 남성들이 '전현무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뭐 어때?'라고 생각하며 어린 후배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여성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런 접근을 당해야만 한다. 자중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날 방송에 역술인이 출연해서 멤버들의 올해 운세를 봐주는 장면이 방송됐다. 21세기에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은 무속 관련 내용은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됐다. 앞으로 공영방송에서 무속 관련 방송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2월 4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이날 방송에 1인당 최소 60만 원의 값어치를 지닌 코스 요리를 소개했다. 현재 시국이 혼란스러운데, 방송에서 이런 비싼 요리를 소개하는 것이 보기 불편했다. 서민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송이었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1박 2일」 '후각 테스트! 개코는 훌륭하다'

- 전자레인지 안으로 얼굴을 넣고 냄새를 맡는 장면, 압력밥솥 증기 나오는 곳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장면은 어린아이들이 따라 하면 큰일이 나는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다.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시청하는 예능이고,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 70대 시청자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이 너무 호화롭게 지낸다. 본인이 출연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인데, 본인의 지인들도 괴리감이 들어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출연자들이 관광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외엔 보여주는 게 없다. <3월 12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나나랜드 - 꿈꾸는 놀이터, 백 년 고택'

- 방송 초반에는 노부부가 고택에서 잘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본인 민박집을 자랑하는 내용이였다. 민박집 홍보처럼 여겨져 보기 불편했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1박 2일」 '경남 양산 - 양산에 왔나 봄'

- 미나리를 수확하며 퀴즈를 풀어서 삼겹살 먹는 게임을 했다. 초반에 젊은 농부가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확을 잘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출연자들이 삼겹살을 먹기 위해 미나리를 함부로 옮기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미나리를 저렇게 취급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농사짓는 분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4월 1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트로트 가수 황민호가 출연 중인데, 이날 방송에서 아버지 생일에 초등학교생이 현금 백만 원을 선물했다. 상황이 반대였어도 의아했을 장면이다. 과연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어 이런 장면을 방송한 것인지 제작진에게 묻고 싶다. <4월 11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예전에는 방송 다음 날 편의점에서 출시되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워홈에서 구매하게 되어 불편하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편스토랑인데,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없다면 제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21일 보고서>

○ 2TV 「공부와 놀부」

- 부모가 연예인 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자연스레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게 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유명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박탈감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개인 방송 등에서 그럴 수 있어도, 공영방송에서는 지양했으면 한다. <4월 2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장PD의 AI 여행기'

- 어렸을 때부터 해당 방송을 즐겁게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장PD의 AI 여행기'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좋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행을 떠난다는 장점이 강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I를 직접 활용하는 장면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5월 16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예전에는 공감을 자아내는 일상적인 육아가 섞여 있었지만, 요즘은 아이돌과 배우들이 출연해서 해당 방송에 출연 중인 아이들과 만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 또한 육아가 '특별한 이벤트' 중심으로 연출되며, 일상적이고 지루한 진짜 육아의 모습은 배제되고 있다. 앞으로 현실적인 육아를 담아내며 정서적으로 위로를 전달하는 가족 예능으로 다시 자리 잡았으면 한다. <5월 21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해당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은 기획의도와 다른 것 같아 굉장히 아쉽다. 기획의도를 찾아보니 '스타 살림남들의 리얼 살림기'인데, 현재는 '스타 연예인의 가정 지키는 법'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가정을 꾸린 연예인을 제외하고, 당사자 혹은 그의 배우자의 일상적인 모습과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21일 보고서>

○ 2TV 「경제콘서트」

- 이날 방송을 시청하니 프랑스 대통령 부부 불화설, 시흥 살인범 소식 등이 보도됐다. 이런 내용은 일반 뉴스에서 다루어질 텐데, 왜 「경제콘서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시간을 내어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국내외 경제 소식을 듣기 위해서다. <5월 29일 보고서>

○ 2TV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 회차가 거듭될수록 기획의도를 잘 모르겠다. 이민정이라는 배우를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라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민정 씨가 요리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너무 기독교적이고, 남편 이병헌 씨에 대한 언급도 많다. <7월 11일 보고서>

○ 2TV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 첫 방송부터 챙겨보고 있는 시청자이다. 얼마 전부터 외국인들의 대사에 마치 「VJ 특공대」에서나 들을 법한 요란한 성우 더빙이 입혀진다. 자막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굳이 더빙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본인과 비슷한 의견이 유튜브 영상에도 댓글로 무수히 달려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재미와 감동이 저해되는 것 같아 의견을 남긴다. <7월 15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최근 아쉬운 부분이 있다. 게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패자에 대한 구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패자팀에게도 음식을 한 접시 주는 것이 너무 흔해졌다. 또한 쉬는 시간에 게임으로 획득한 음식 외 균것질을 허용하는 것도 게임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행동들은 1기부터 지켜온 '버라이어티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7월 25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수신료를 내며 시청하고 있는데, 왜 시청자들이 엄지인 아나운서의 자녀가 진로 상담받는 것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연예인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까지 아나운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니 보기 불편하다. <9월 23일 보고서>

○ 2TV 「셀럽병사의 비밀」

- 해당 방송을 시청했는데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연자들의 대화에 집중이 저해될 정도였다.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어려운데, 배경음악까지 크니 집중할 수가 없다. 소리를 좀 줄여주기 바란다. <9월 25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김종민 씨가 중간에 동료의 엽전을 흠치는 장면이 방송됐다. 자막에는 '김발장'이라고 표기됐다. 장발장은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쳤는데, 김종민 씨는 재미로 절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이 보면 절도도 재미로 인식할 수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정도를 지켜주기 바란다. <9월 30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나나랜드'

- '나나랜드'에서 트랙터를 탈곡기처럼 쓰며 깨를 터는 장면이 방송됐다. 본인도 농업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본인 동네에서 남성 한 분이 그런 식으로 깨를 털다가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로터리가 한 번 작동하면 운전석에 사람이 없으면 멈추기 어렵고 빨려 들어갈 수 있다.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이 따라 할 수도 있는데, 노하우라고 알려주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 <10월 30일 보고서>

○ 2TV 「2025 KBS 가요대축제」

- KBS 연말 시상식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이다. 그런데 가요대축제에 시상 제도가 없어 지루하다. 시상 제도를 다시 부활해 주었으면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발라드, 인디밴드,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부문으로 시상해 주기 바란다. <12월 1일 보고서>

○ 2TV 「배달왔수다」 [최종회]

- 진행자 두 명에 출연자 세 명이었는데,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 다 먹지도 못할 양의 음식을 시켜서 남기는 것은 낭비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또한 개그맨 임우일 씨가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손님한테 대접했는데, 음식이 섞여 있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지저분했다. <12월 16일 보고서>

○ 2TV 「2025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

- 시상 제도가 없어 식상하고 지루하다. 내년부터는 시상 제도가 부활했으면 한다. <12월 22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해당 방송은 연령층이 높을 것 같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선곡하는 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라디오를 많이 청취하지 않는다. 중장년층, 노년층이 좋아할 곡으로 선곡해 주면 좋을 것 같다. <2월 13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K'

- 해당 코너에 남자 기자 두 명과 여자 기자 한 명이 출연했다. 그런데 두 남자 기자의 목소리가 너무 비

슷한 나머지, 청취자가 듣기에 누구의 발언인지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웠다. 발언하기 전에 누구인지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10월 22일 보고서>

○ 1R 「경제쇼」'부동산 동향'

- 부동산 동향으로 서울 집값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본인 같은 서민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다. 해당 내용은 전혀 대중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빈부의 격차만 느끼게 한다. 대중적인 소재로 서민을 위한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1월 24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시사본부」

-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다루는 것 같다. 국민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며, 국가 경제 및 서민들의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방송보다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약자들을 위한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2월 2일 보고서>

○ 1R 「바른 말 고운 말」

- 옛말이나 속담 등을 설명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많이 쓰는 잘못된 표현을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퀴즈에 나오는 정보들은 일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월 17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시각장애인들은 휴대폰으로 문자 쓰기가 어려운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문자 사연만 받기 때문에 사연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간혹 우편으로 보낸 사연도 읽어준다. 이 점을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이 많다. 방송에서 손 편지를 보내도 된다고 종종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11월 17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듣는다. 그런데 선곡은 팝송 위주로 이루어진다. 연령층을 고려해서 가요나 트로트를 선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5월 26일 보고서>

○ 1FM 「가정음악」

- 밸런타인데이인 이날 오프닝 멘트에서 사랑과 관련해 고은 시인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고은 시인은 성추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기에 듣기 불편했다. <2월 17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매일 12시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면서, 음악을 들으며 식사하는 행복감에 젖곤 한다. 이날 말리의 교향곡에 선곡되었는데, 식후 졸린 시간이어서 몰입하기 어려웠고 이내심 있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거운 교향곡은 식사 시간에 듣기엔 불편하다. 오후 2시 「명연주 명음반」같은 방송에서 다루주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방송에선 조금 더 가벼운 곡을 선곡해 주었으면 좋겠다. <5월 22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2~30년 동안 KBS 클래식 채널을 청취해왔다. 청취자들이 클래식 채널을 청취하는 목적은 감미로운 음악을 듣기 위해서다. 그런데 진행자가 음악과 관련 없는 생활 정보, 인간 소식, 기타 잡담 등을 해서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된다.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음악 비중을 높여주기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편식의 유혹 - 연주자 편’**

- 한 곡을 정하고, 닷새 동안 다섯 명의 연주자가 해당 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려주는 코너다. 신선한 아이디어이지만, 청취자들이 연주자 별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바쁜 일상을 시작하며 방송을 듣기에 곡에 깊은 몰입을 할 수 없는데, 5일 연속 같은 곡을 듣는 것은 전파 낭비라는 생각도 든다. <8월 13일 보고서>

○ **2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 오마이걸 효정 씨가 DJ를 맡고 있다. 그런데 효정 씨가 진행을 맡은 이후 방송 중에 음주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미성년자도 많이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제작진은 음주 관련 사연은 채택을 자제해 주기 바라고 DJ는 음주 관련 우호적인 멘트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2FM 「조정식의 FM대행진」**

- 본인은 대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오전 시간대 방송인데 소란스럽다. 아침 시간에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방송해 주었으면 한다. <3월 20일 보고서>

○ **2FM 「이은지의 가요광장」**

- 특정 가수의 노래를 많이 선곡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면 최근에 소녀시대 노래를 3일 연속으로 들었다. 청취자 입장에서 듣기 안 좋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8월 6일 보고서>

| 10. 언어 |

○ **1TV 「KBS 뉴스광장」**

- '이슈 키워드' 등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나이가 많은 시청자들은 영어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단어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영방송이니 외래어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스카우트 6 얼리어잡터」**

- 50대 중반의 시청자이다. '얼리어잡터'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아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해 보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외래어로 제목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알아듣기 쉬운 제목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7월 14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이어카, 세상을 잇다’**

-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리어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손수레라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왜 외래어인 리어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9월 18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겠다고 난리인데, 정작 공영방송에서는 한글을 두고 외래어나 줄임말을 사용한다. 외국인들이 '쌤'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정해 주기 바란다. <10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오늘의 영상] 남농은 필리핀 여농은 일본인 해결사'

- 이날 뉴스에 '남농', '여농'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 농구와 여자농구의 줄임말이었다. 나이가 든 경우 이런 줄임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줄임말 사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2월 3일 보고서>

○ 2TV 「셀럽병사의 비밀」

- 프로그램의 제목에까지 '셀럽'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니 가슴이 아리고 씁쓸하다. KBS는 공영방송이니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11.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

○ 2TV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 해당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병산서원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문화재에 어떻게 못을 박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촬영에 빠져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라면,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2. 장애인/차별 |

○ 「수어 통역 품질 개선 요구」

- 농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통역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여 방송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은 사람들의 삶과 안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방송 통역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 농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13. 일기예보 |

○ 1TV 「KBS 뉴스광장」

- 정희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정보를 잘 전달해 준다. 발음이 정확해서 내용 전달이 잘 된다. 앞으로도 계속 날씨 코너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2월 18일 보고서>

| 14. 방송품질 |

○ 1TV 「아침마당」

- 뒷배경에 목련이 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인데도 목련이 있으니 계절에 맞지 않다.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눈 내리는 장면 등 계절감이 느껴지게 세트를 꾸며주면 좋겠다. <8월 2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본인이 2~3주 전에, 무대 배경에 아직도 목련이 장식되어 있어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날 무대 배경이 바뀌어 보기가 좋았다. 의견이 반영된 점이 좋다. 매일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9월 9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아이돌 그룹 출연 시 카메라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노래도 듣고 싶고 무대도 보고 싶은데, 가수들도 바빠 움직이는 데다가 카메라까지 빠르게 돌아가니 정신이 없다. 젊은 사람들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따라갈지 몰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기 힘들다. 카메라 움직임을 줄이고 무대 전체를 보여줬으면 한다. <5월 13일 보고서>

○ 2TV 「2025 MLB 코리안 빅리거 출전경기」'LA다저스 : 샌프란 시스코'

- 야구 중계를 시청 중인데, 현장음과 화면이 맞지 않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치는 소리가 먼저 나오고 이후 공치는 화면이 나온다.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 바란다. <7월 14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킹메이커로 돌아온 배우, 유진'

-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다. 한때는 약간 높이 있는 의자를 설치해서 보기 좋았는데, 다시 방석으로 돌아와서 출연자들이 불편해 보인다. 출연자들이 가부좌를 틀었다가, 다리를 세웠다가 어쩔 줄 몰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 불편하다. 제목을 '옥탑방의 문제의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출연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기 바란다. <9월 29일 보고서>

| 15. 시청자 참여 |

○ 1TV 「TV쇼 진품명품」

- 일반인에게도 방송에 출연해 퀴즈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본인도 방송에 참여해서 퀴즈를 풀고 장구 선물을 받고 싶다. <2월 21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만, 본인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인터넷하는 방법을 배워보기도 했지만, 막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방법을 모르겠다. 방청하고 싶은데 인터넷 참여는 어려우니, 전화로도 방청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장바구니를 잡아라'

- 경남 거제에서 시청하고 있다. 본인을 비롯해 친구들 모두가 해당 방송에서 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이가 있어서 SNS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 많이 아쉽다. 전화 참여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

-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해당 방송에 제보하고자 문의하니 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하라고 안내받았다. 본인에게는 팸플릿 등 자료가 많아서 방문 접수를 희망한다.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쉽게

접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5월 12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해당 프로그램을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한다. 그런데 전화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티벳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다. 티벳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고령층 시청자들은 너무 답답하다. 방송을 좋아하는데 참여를 못하니 속상하다. 전화 참여가 항상 가능하게 해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1TV 「특별 생방송 K관광 올 여름은 국내로」

- 방송을 시청하다가 처음으로 의견을 낸다. 이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야외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너무 보기 불편했다. <7월 9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

- 75세 시청자이다. 본인도 장애가 있고, 90세 할머니도 허리가 굽어서 해당 방송에 출연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나 한글도 배우지 못해 글을 쓸 수 없어 홈페이지 신청이 어렵다. 인터넷 사용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출연 신청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월 17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예전에는 전화로도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무언가를 설치하라고 하는 등 쉽지 않았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전화로도 방청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11월 26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제하는 퀴즈에 참여하고 싶은데, 티벳이라는 앱을 깔아야 하니 참여할 수가 없다. 나이 든 시청자들은 앱을 설치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라디오 프로그램들처럼 문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울산에서 녹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울산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비가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 본인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가는 길에 혹은 울산 도착 후 취소 문자를 받게 될까 우려가 된다. 이런 상황이면 제작진이 빨리 판단을 내려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21일 보고서>

○ 2TV 「KBS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 조용필 콘서트 티켓팅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다. 아직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데, 언제쯤부터 티켓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빠른 공지 바란다. <7월 28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10CM의 쓰담쓰담」

- 곧 수능을 앞둔 고3 시청자이다. 수능 마친 후 해당 프로그램에 방청하러 가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방청이 안 된다고 한다. '수능 특집'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미성년자도 방청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이날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본인이 90세라서 일제를 경험했기에

의견을 내고 싶은데, 전화 참여가 안 되니 아쉽다. 하루에 한두 건이라도 청취자 전화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2월 10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문자 참여가 어려운 청취자이다. 문자 쓰는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 어렵다. 본인이 좋은 노래를 많이 알고 있지만, 문자 참여가 어려워 신청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 애청자들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한다. 전화 참여의 기회도 제공해 주기 바란다. <6월 25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시각장애인 청취자로 해당 방송을 많이 듣는다. 시각장애인이라 문자 사용이 어렵다. 본인 같은 청취자들을 위해 손 편지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요즘 라디오는 청취자 참여 기회가 많이 없다. 서운하다.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8월 4일 보고서>

| 16. 홈페이지 |

○ 1TV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우정콘서트」

- 방송 잘 시청했다. 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밥상조리서’

- 지난주 ‘밥상조리서’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빠른 업데이트를 부탁한다. <8월 20일 보고서>

○ 1TV 「퀴즈토리 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

-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해당 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해서 한번 더 시청하고 싶다.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11월 13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언제부터인가 홈페이지에 예고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 시청자 입장에선 출연하는 가족들이 다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예고 영상을 통해 어떤 가족들이 출연하는지 파악한 후 시청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 홈페이지에 예고 영상을 올려주었으면 한다. <4월 17일 보고서>

○ 2TV 「누가 누가 잘하나」

- 지난 21일 방송에서 MC가 정은혜 아나운서로 바뀌었는데, 홈페이지는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빠른 수정 부탁한다. <8월 29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임영웅과 친구들’

- 해당 방송분에 대한 재방송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본인은 수신료를 내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TV를 시청할 수 없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게 됐다. <9월 2일 보고서>

○ 1R 「라디오 매거진 '위크 앤드(Week &)」

- 주말에 볼일을 보면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 게시판에도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다. 다시듣기 서비스가 부활했으면 한다. <3월 25일 보고서>

○ 2R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채팅창에 방송과 무관한 채팅을 꾸준히 올리는 청취자는 차단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성적인 얘기나 정치적인 발언으로 다른 청취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관리해 주기 바란다. <10월 15일 보고서>

○ 3R 「우리는 한가족」

- 좋은 내용이 많고,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6월 26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일주일 내내 듣는 방송이고 재미있어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다시 듣기가 없어서 불편하다. 가수들 나와서 하는 '가요 인물열전'과 화요일 '송명하의 옛 노래 이야기'를 좋아한다. 특히 좋아하는 금요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은 방송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고, 목요일 '지금은 트롯 시대' 코너가 사라진 점도 아쉽다. <11월 26일 보고서>

| 17. KBS 애플리케이션 |

○ 「KBS 콩(KONG)」

- KBS 콩(KONG) 애플리케이션의 끊김 현상이 심하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분 간격으로 5-6초씩 끊김 현상이 있다. 공영방송의 애플리케이션이 개선이 안 되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 끊김 현상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6월 2일 보고서>

○ 기타 「아침마당」

- 이날 티벳 오류가 있었다. 티벳은 열리는데, 퀴즈창이 열리지 않아 시청자들이 화가 났다. KBS에서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속히 오류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12월 10일 보고서>

| 18. 프로그램 구매 |

○ 1TV 「한국인의 밥상」

- '밥상조리서'에 좋은 레시피가 많다. 책으로 출간해 주었으면 한다. <4월 7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여행 다닐 때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정보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책자로 발간해 주기 바란다. <7월 24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방송 내용을 담은 책자가 출간되었으면 한다. 본인이 예전에 「건강 365」에서 발간한 월간지를 구독했던 경험이 있다. 그것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월간지를 발행한다면, 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월간지를 구독할 수 있으니 유용할 것 같다. <1월 1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엄마의 밥상' 코너를 도서로 발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었다. 아직 소식이 없어 궁금하다. 이 코너가 책으로 발간되었으면 좋겠다. <2월 20일 보고서>

| 19. 보도 제언 |

○ 1TV 「KBS 뉴스」

- 뉴스에서 '제주항공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직 공항 타인지 항공사 타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뉴스에서 '제주항공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마치 사고를 항공사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것처럼 여겨진다. <1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KBS 뉴스를 시청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다. 본인은 시골에 거주하는데, 막상 구매하고 보니 사용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자 구매 후 7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환불 규정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위험' 도로 통제...밤사이 사건·사고'

- 밤사이 사건·사고를 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견인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며 관련 현장을 보여줬다. 한 남성이 사고 현장에 누워있는 모습이 방송됐는데,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너무 충격을 받아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참혹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영업 전 바닥 난 '유심'...'오픈런'에 '항의' 이용자만 발 동동'

- SKT 이용자다. KBS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소식을 다뤄주어 고맙고, 잘 보고 있다. 본인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유심을 구하려 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고객센터에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심각성을 추가로 더 보도해 주기 바란다. <4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요즘 배민이나 쿠팡 등에서 일하는 배달 종사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배민이나 쿠팡의 구조가 하청을 통해 배달 기사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하청업체 사장이 배달 기사들의 임금을 '먹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임금 체불 정도로 끝나기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KBS에서 이런 사례를 취재 후 공론화 시켜주었으면 한다. <5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뉴스인뉴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비 쿠폰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가맹점부터 설명하고, 이후 지역 단위로 설명했다. 보도하는 입장에서 시청자들을 끝까지 시청하게 만드는 방법일 순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더 큰 단위인 지역 단위 설명 후 작은 단위인 가맹점 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7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수도권 5년 내 135만 호 착공...강남3구·용산 LTV 강화'

- 이날 보도에 LTV, DSR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9시 뉴스를 유식한 사람들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문 약어에 대한 풀이도 함께해 주기 바란다. <9월 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시즌 9승! '안세영 공포증'에 빠져들고 있는 중국'

- 우리나라 안세영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이어진 '중국 선수들의 집중 견제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멘트에 낯 뜨거워졌다. 외국인들도 많이 시청하는 방송인데 자국을 찬양하는 멘트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또한 배드민턴은 축구처럼 단체 경기가 아닌 개인전인데, 어떻게 상대 선수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는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10월 29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63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이송, 자료 부존재 등)	계
21	10	13	19	63

※ 2025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 2일	조**	시국 관련 검찰에 정보공개 요청	정보 부존재/ 진정· 질의	
2	1월 3일	장**	수신료 관련 민원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요청	비공개	음성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불가, 내방에서 열람 가능
3	1월 14일	배**	수상기 등록대장 공개 요청	전부 공개	
4	1월 17일	공**	1988년 올림픽 통역 자원봉사 이 력 자료 정보공개 요청	정보 부존재/ 진정· 질의	
5	1월 20일	김**	의정부경찰서 전 형사 이선만 인 터뷰 영상 제공 요청	종결처리	청구내용에 해당 정보 검색 할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하여 보완 요청
6	1월 21일	배**	수신료 관련 등록대장 등 추가 공 개 청구	부분 공개	세대주 등의 개인정보 제외 하고 공개
7	1월 22일	조**	승진 채용 심사 자료 등 일체 제 공	정보 부존재/ 진정· 질의	대부분 정보 부존재, 일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개인정보 에 해당해 비공개
8	1월 24일	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관 련 자료 공개 요청	취하	청구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함
9	1월 31일	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관 련 자료 공개 요청 건 취소 요청	취하	청구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함
10	2월 20일	김**	약 30여년 전 부산총국 프로그램 시 에 출연한 방송 영상을 받고 싶 다.	정보 부존재/ 진정· 질의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2월 24일	김**	함백산 중계소 첩탐 높이 문의	전부 공개	
12	3월 5일	박**	퇴직 직원 회사 상대 소송 제 기 여부 등 공개 요청	전부 공개	
13	3월 11일	k**	편성표 정보공개 요청	전부 공개	
14	3월 13일	서**	인사 규칙 등 공개 청구	전부 공개	
15	3월 28일	언론노조 KBS 본부	사건번호 2024구합69111(서울 행정법원)과 관련해 KBS가 제 출한 문서 일체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호에 의거 재판에 영향 우려 비공개
16	3월 31일	김**	2002년 제83회 전국체전 개막 식 영상 공개 청구	전부 공개	
17	4월 9일	언론노조 KBS 본부	사건번호 2024구합69111(서울 행정법원) 관련 KBS의 정보공 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비공개	청구내용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 있어 비공개 결정
17	4월 10일	박**	2024 KBS 창작 동요제 예산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6항(개인정 보), 7항(영업상의 비밀)에 따 라 비공개
19	4월 11일	언론노조 KBS 본부	특별인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 및 회의 결과	부분 공개	인사위 개최 내역은 공개, 심 의사항은 개인정보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 라 비공개
20	4월 14일	NAN MON AYE(미안 마인)	뉴스9 방송 인터뷰 원본영상 공개 청구	전부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4월 16일	박**	창작동요제 예선 심사위원 명단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6항 개인 정보여서 비공개 함
22	4월 17일	언론노조 KBS 본부	특별인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 및 회의 결과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비공개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 개인정보 포함하고 있어서 비공개
23	5월 7일	언론노조 KBS 본부	KBS가 사건번호: 2024구합 69111 (서울행정법원)에 대해 제출한 일체의 문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개인정보 및 공사 영업상의 비밀
24	5월 7일	k***** **	KBS N' 서체를 공공에 개방해주세요.	비공개	공공 개방 여부 검토 중에 있음
25	5월 7일	k***** **	1987년 첫 방송 이후 종방까지 KBS 심야토론 주제를 알고 싶습니다.	전부 공개	
26	5월 12일	하**	2027~2021년 본인 청구 정보 공개청구건을 공개하라	전부 공개	
27	6월 5일	홍**	말소 요청한 TV 수신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업무처리 경과 등을 공개 청구	부분 공개	수신료 업무처리 결과 등은 공개하고, 업무 담당자 등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6항에 따라 비공개함
28	6월 3일	조**	미국변호사가 미국에서 이재명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귀기관의 대책을 공개하라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29	6월 12일	이**(일하는 시민 연구소)	수어통역사, 방송작가 현황 공개 청구	전부 공개	
30	6월 12일	현**	강현재 회장 공적비 제막식 보도 경위 공개 요청	전부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6월 26일	홍**	불후의명곡 왕중왕전 득표수 산 정 방식 공개 청구	전부공개	
32	7월 2일	송**	2006년 선친이 <세상의 아침> 에 출연했던 영상을 받고 싶다	전부공개	
33	6월 27일	하**	에설런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 개 청구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34	7월 3일	나**	서울신문사가 유상증자를 했는 데 KBS 지분에 변동이 있는가	전부공개	
35	7월 8일	이**	수신료 상담원과 통화한 음성파 일을 공개하라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개인정보 여서 녹음파일 제공은 어렵 고, 녹취록은 공개함
36	7월 7일	권*	KBS 제작,영상,조명 부서 정보공 개 청구	부분공개	TV제작부서, 영상제작부서, 방송기술 부서 등의 조직체 계 정보는 제공하고, 보직자 등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 9조 개인정보여서 공개하지 않음
37	7월 17일	이**	폐지 프로그램 <노래가 좋아> 게시판 글 공개 청구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38	7월 25일	이**	CNN 등 해외매체 한국지사 주 소, 해외본사 주소 공개 청구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39	7월 25일	유**	24~25년 외주제작목록 등 KBS 전반에 걸친 11가지 청구	부분공개	3건은 공개, 1건은 정보부 존재, 3건은 기공개, 나머지 는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 개대상 정보에 해당
40	7월 30일	이**	이산가족찾기 상봉자인 선친과 외삼촌의 명부와 영상 공개	전부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41	8월 5일	박**	통일교 단체 이름으로 광고 송출한적 있는지 공개 청구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
42	8월 8일	하**	한국이 에설련 프로젝트 가입국 인지 공개 청구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43	8월 11일	조**	대통령 경호처, 이재명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공개 청구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44	8월 11일	유**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행정심판 청구한다는 통보	종결처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설명 자료를 발송함
45	8월 19일	김**	조용필소 초대권 신청했으나 실공 패했다.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공개하라	부분공개	초대권 배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
46	8월 19일	정**	조용필소 초대권 배부와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을 공개하라	부분공개	초대권 배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
47	8월 22일	백**	2006년 속리산 오리숲 황톳길 개통 방송 여부 공개 청구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48	8월 25일	한**	<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림작가이다. 2013년 TV유치원에서 방송을 한 경위를 공개하라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49	8월 29일	김**	KBS와 방통위에 제기한 권한쟁의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50	9월 1일	조**	방미 이재명 대통령 멸시 이유 등을 공개하라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51	9월 2일	이**	2009~20011년 무렵 아침마당에 출연한 순천 박재원님의 영상 공개 청구	전부공개	
52	9월 10일	최**	KBS 정규직 직원 총인건비와 평균 연봉 공개	전부공개	
53	9월 12일	정**	KBS 스포츠월드 지상권 설정 경위 등에 대한 공개 청구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7항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함
54	9월 16일	최**	KBS와 한전간 수신료 위탁 계약서 공개하라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7항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함
55	9월 29일	조**	미국 민요 열꼬마 인디원 유래 아는 사람 명단 공개 청구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56	10월 21일	한**	과거 본인 출연 영상물을 공개해달라	전부공개	
57	10월 22일	김**	뮤직뱅크 K-차트 산정기준 공개 요청	전부공개	
58	11월 12일	주식회사 본레이크	방통위 안티드론 연구과제 수행 위해 방송시설 공개 청구	부분공개	통합방위법,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지정, 상세 제공은 불가하고 대략 공개
59	11월 19일	문**	수신료 상담중 상담사가 욕설을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부분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사 음성을 제공하지 않고 녹취록 제공
60	11월 24일	강**	가요무대 문연주 가수 '하룻밤 첫사랑'영상 공개 청구	전부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61	12월 4일	안**	<KBS다큐>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제공받은 시점을 공개하라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영업상 경영상 비밀
62	11월 29일	부**	한국의 마인드컨트롤, 인간해킹, 신체고문조직을 공개하라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63	12월 23일	조**	부산에서 치러진 한국어진흥시험 듣기평가 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	전부공개	



시청자 권익 보호

■ 시청자 권익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1. 구성

- 시청자위원(5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 처리 실적 검토
- 고충 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와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PP 및 유료방송 등에 대한 방송미디어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홈페이지 : <http://www.km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센터장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 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377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377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21	7	4	32
2		28	11	7	46
3		26	5	1	32
4		23	7	6	36
5		30	4	3	37
6		13	3	6	22
7		49	4	3	56
8		15	3	7	25
9		29	3	7	39
10		17	4	1	22
11		11	2	1	14
12		6	7	3	16
계		268	60	49	377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238건)			비제작부문(139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직원)	시청자 서비스 (난시청, IT, 서비스이용)	기타	
건수	15	44	179	83	31	25	377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12	3.2
보도 취재요청	9	2.4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26	6.9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18	4.8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12	3.2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93	24.7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69	18.3
난시청	19	5.0
경영(직원, 시설)	14	3.7
수신료	69	18.3
기타	36	9.5
계	377	100

7

시청자 청원

■ 시청자청원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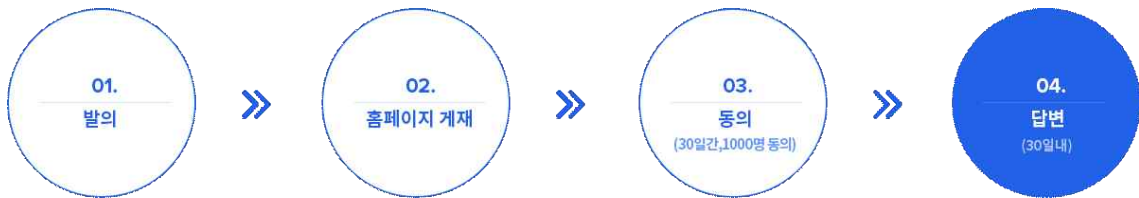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청원이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 청원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 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청자청원 절차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되며,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문서로 답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30일 이내에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시한다.



■ 알림서비스

청원인에게는 청원글을 게시한 경우, 청원제한이 가해진 경우,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답변이 달린 경우에 SMS,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 시청자청원 제한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시청자청원 운영세칙>을 게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해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세요.
5.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문제 게시물은 [숨김 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해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8.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9. 같은 내용으로 중복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10. 작성된 청원은 최초 청원 취지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신중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청원 운영 세칙에 어긋난 청원 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삭제 또는 숨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현황]

월	구분	접수	비고
1		83	
2		71	
3		63	
4		44	
5		830	
6		49	
7		73	
8		83	
9		64	
10		57	
11		32	
12		68	
계		1,517	

※ 청원: 2018.09.04. 오픈

8

부록(강령, 규정, 지침, 기준)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총 강]

I. 자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Ⅲ. 독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Ⅳ.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Ⅴ.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Ⅵ. 정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Ⅶ. 품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 내용 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직권개정 2019.6.19. 규정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센터,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 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직권개정 2019. 6. 19.>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는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월 신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2019.6.19.)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충처리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방송채널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프로그램명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KBS 고충처리인 귀하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부사장
 - 위원: 약기확실장, 보도시사본부장, 콘텐츠전략본부장, 방송인프라본부장, 경영본부장, 감사실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청자센터장이 됨
5. **개 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 ※ 정보 공개 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이의신청은 7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 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5 시청자청원제도 운영기준

1. 목적: 본 기준은 시청자 청원 제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공영방송 KBS의 주인인 시청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청자권익을 증진하고, 시청자 신뢰 강화를 위해 구축한 '시청자 청원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운영방안

가. 청원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 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관리, 업무효율성을 위해 청원글은 아래 첨부와 같이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청원글 작성자는 작성시 분류를 선택한다.

다. 청원 발의 및 후속처리 절차

- (1)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된다.
- (2)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 (3)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다.
- (4)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5)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 부서에 문서로 답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30일 이내에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6) 공익성,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는 사안의 경우 청원성사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청원에 대한 유관부서의 신속한 답변요구 및 답변게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정해진 기한내 청원성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라.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삭제 또는 숨김처리)할 수 있다.

- (1)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2)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3)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4) 허위 사실이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5)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6) 첨부된 파일이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 청원
- (7)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마.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1)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2) 관리자는 시청자 청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3)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청원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 (4)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 ID 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답변 시한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6) 관리자는 일정기간 동안 성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7)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8)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바.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1) 청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2)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센터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3) 기타 세부업무처리하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

사. 기준의 개정

시청자 청원 업무 담당부서는 관련법령이나 본사 상위지침 개정시 또는 시청자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해 운영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아. 알림서비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인에게 SMS, 이메일이 자동 발송된다.

- (1) 청원글을 게시한 경우
- (2) 청원글에 제한이 가해진 경우
- (3) 청원글이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슈 청원'으로 채택)
- (4) 청원글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5) 청원글에 답변이 달린 경우

(부칙)

이 기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조. 다항. (6)호는 2023년 11월 20일)

[첨부]

시청자청원 사이트 카테고리 분류

분류	세부 내용	비고
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보도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외주제작, 호평, 불만, 광고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방송경영	경영사업, 계열사, 수신료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시청자권익	방송 피해(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제언 등	